

교우론 (De Amicitia, 交友論) 1)

- 마태오 리치 신부가 저술한 최초의 한역서학서 -

2019. 성 若翰 세례자 축일에, 김학렬 若望 신부.
약 한 약 망

1-1. 마태오 리치(1552.10.6.- 1610.5.11.) 신부는 1582년 8월 7일에 마카오에 도착한 이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엘이 선종하면서까지 영원했던 대로, 동양문화의 중심인 北京으로 진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국인으로서 간첩혐의를 의심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북경을 향하여 진출하던 리치 신부는 스님 복장에서 儒生 복장으로 갈아입고, 1595년 4월 18일에 중국 남부 廣東 지방을 떠났고, 2) 1595. 6. 28일에는 江西 省 南昌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建安王(Re di Chiengan, Kienan)을 만나게 되었다. 1595년 10월 28일에는 南昌(Nancciam) 체류허가를 巡撫인 陸萬垓(天溥, 仲鶴)에게서 받았으며, 거기서 明 황제의 친족들을 만나 교류하게 되었다. 3) 특히 건안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 서부터, 간접적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최초의 漢字 작품인 [교우론]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 저술은 마태오 리치가 중국선교란 최종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채택한, 적응주의적 방법 (adattamento, adaptationism) 의 일환이었다. 이는 중국과 그 주변국가에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文書宣敎란 새로운 선교방법을 채택하게 됨을 의미했다. 4)

1-2. 왕족들은 1595년 8월 29일까지 3번이나 리치 신부를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은 瞿太素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5). 특히 建安王(Chiengan, 朱多火節[촛불동절], 瞿 태 소 건 안 왕

1) Archivio della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고문서고/APUG), Ms. 292, pp. 189-200./이 문서에는 78번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1번은 리치의 서론이고, 78번은 출판 날짜에 대한 것이어서, 교우론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76개이다.; Matteo Ricci, Dell'amicizia, a cura di Filippo Mignini, Macerata 2005. 참조.; PASQUALE D'ELIA, Il Trattato sull'Amicitia di Matteo Ricci, S.J., in Studia Missionalia vol. VII, Romae 1952, pp. 425-516./ 이 논문은 1601년 판본 교우론(Roma 의 Vittorio Emanuele 도서관 소장 最古本. 도서분류번호 72, C, 467.1) 이 영인되어 실려있는데, 1599년에 쓴 瞿太素(瞿汝夔-1605.3.25.에 이나시오로 영세=D'ELIA 논문 p.454)의 서문과 그 다음 馮應京의 서문에 이어, 교우론 본문이 100개의 번호까지 붙어있다. 리치 탄생 400주년(1552-1952) 기념 논문이다.(p. 450). (이 문헌은 로마에 유학중인 진효준 신부가 구해서 보내주었다.). 앞으로는 이 책을 'D'ELIA 논문'으로 약칭한다.

2) D'ELIA 논문 p. 451-452.

3) Pasquale M. d'Elia, Fonti Ricciane, 1942 Roma, N. 465- 남창 참조. 앞으로 이 책을 FR로 약칭한다.; 송영배 역주, 교우론, 2013 서울대, p.5-각주 2.

4) D'ELIA 논문 p. 450, 513 참조./라명건의 [천주성교실록]이 중국 문인들의 도움을 받은 글이라면, 이 교우론은 리치 신부 자신의 작품이다. ; 메디나 지음. 박철 옮김, [한국천주교전래의 기원 (1566-1784)], 1993 서강대학교, 89.

乾齊)과 樂安王(Loan, 多煥)은 리치와 대화하고 교류하기를 원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건안왕이 더 적극적이어서, 리치 일행을 王室으로 불러들여 함께 茶를 마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식사에 초대하며 교류를 넓혀 나갔다. 리치 신부는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선물로서, 구리 기름통과 성 라우렌시오 동상, 지구의와 나침판, 24절기를 표시한 石材 해시계와 책 등을 선물하였다. 6)

1-3. 이에 화답하여 건안왕은 자신이 그려 만든 부채, 비단 신발과 은제품, 먹을 등을 선물하였다. 7) 그가 리치에게서 받은 선물들 중에는, 아주 소중한 여기는 두 종류의 책들이 있었다. 하나는 유럽 방식대로 일본제 종이로 만들어 액자에 넣은 세계지도로서, 이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호주와 함께, 4원소와 9중천으로 이루어진 지도였다. 또 다른 책은 교우론으로서, 건안왕이 리치 신부에게 유럽에서는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리치 신부가 기억나는 대로 그리스 철학자와 성인, 고대 및 근대 라틴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한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교우론] 작품이 되었다. 8) 미켈레 루지에리 신부의 [천주성교실록]이 10 여 년 전에 이미 출판되어 나왔으나 (1584년 11월), 그 작품이 중국인 학자들의 손을 거치고 다듬어진 작품인데 비하여, 9) [교우론]은 리치 신부가 중국학자들의 도움이 없이, 자신이 직접 만든 최초의 漢文 작품(漢譯西學)이었다.

2-1. [교우론]은 리치가 저작한 글 가운데 가장 짧은 글로서, 2천여자의 漢字로 되어 있고, 리치 자신이 출판한 적은 없었다. 10) 책 제목은 [Chiaoieu Lu'en, Trattato sull'Amicizia, 交友論]이다. 리치는 자신이 쓴 짧은 서론에서, 11) 1595년에 어떻게 南昌에

5) FR N.478 -각주1.
 6) FR N.479.: D'ELIA 논문 p. 452-453./ 건안왕 자신이 그린 부채와 비단 신발을 선물한데 비하여, 리치는 베니스산 프리즘, 성모화. 중국의 24절기를 표시한 석재 해시계 등을 선물하였다.
 7) FR N.480.
 8) FR N.482, 483.: D'ELIA 논문 p. 453.: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소순태 교수가 찾아내어 필자에게 제공한, 예수회 로마 고문서고에 있는 교우론 영인본과 대만에서 발행한 천학초함 영인본의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595_교우론.htm /이 교우론 영인본은 예수회 로마 고문서고 **Jap-Sin. I 49**에 있고, 1601.1.7.자의 서문이 들어 있으나, (4a - 明萬曆 辛丑 春正月人日 明德堂), 14b-15a의 한 장은 낙장 되어 없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29_천학초함/천학초함_전6책.htm (교우론은 pp. 299-320에 있다.).
 9) FR. N.253- 각주 1./ [천주성교실록] 작성에 참여한 학자들 가운데, Fukien복건 출신으로서 북경 과거시험에서 秀才가 된 학자의 도움이 컸는데, 그는 1584. 12. 21.에 바오로로 세례를 받았다.
 10) FR. N. 464.
 11) D'ELIA 논문 p.462./ 앞의 서론에서는 大西洋 耶穌會士 利瑪竇 述이라 하여, 아마도 처음으로 야

도착하였는지, 어떻게 건안왕의 연회초대에 응하였고, 유럽의 식자들은 우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달라는 건안왕의 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76개의 아주 짧은 문장들을 먼저 써 주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24개 문장을 추가하여 100개의 문장으로 완성하였다. 12) 이리하여 馮應京(Fomimchin)은 1601. 2. 9일자로 출판한 서문에서, 교우론이 100 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다고 기술하였다. (友論凡百章).

2-2. [교우론]이 처음으로 출판된 날짜에 대해서 논하면, 출판된 [교우론]의 끝에 萬曆二十三年歲次乙未 三月望日, 즉 양력 1595. 4. 24일 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왜냐하면 리치가 1595. 4. 18.에야 廣東에서 출발하였고, 처음으로 南昌에서 건안왕을 만나 알게 된 날자가 1595. 6. 28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출판일이 잘못 표기된 이유는 리치가 필기한 교우론을 전해 받아 彫刻하면서, 縱으로 표기된 11월을 착각하여 3월로 읽고 彫刻하였기 때문이다. (土 => 三). 따라서 출판 발행일은 음력 11월 15일(양력 12월 15일)이 되어야 정확하다. 13)

2-3. [교우론]은 리치가 1595년 9월 4일 이후 남창에서,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로 된 기존의 명언 문장들을 기억해내어, 한문으로 번역하여 작성하였는데, 정확히 1595년 11월 4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작성하여, 1595년 말 이전에 건안왕에게 증정한 작품이다. 14) 그러나 리치에게 언급도 하지 않고, 蘇大用이 필사본으로 유포되던 교우론을 寧都에서 1595년 말경에 처음으로 출판해 내게 되었다. 15) 이후 瞿太素(瞿汝夔)가 1599년 1월 27일자의 서문을 넣

소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교우론 끝에서는 大西洋 修士 利瑪竇 集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자신을 修士로 칭하고 있다. 한편, 앞의 서론에서 본인이 쓴 것임을 '리마두述'이라고 밝히고 있고, 본문의 끝에서는, 자신의 創作이 아니라, 先人들의 금언(金言)들과 모범(模範)들을 모아 엮은 책(冊)임을 '리마두集'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직(正直)하게 밝히고 있다.

- 12) D'ELIA 논문 p.426의 Summarium에서, 1598년 경에 리치 자신이 첫 번역에 새 번역을 첨가하였다고 하며, p. 454에서는 기존의 76개의 문장에 24개 문장을 1601.1.9.이전에 첨가하여 100개의 문장이 되었다고 한다. = p. 461의 각주 2도 참조.; Matteo Ricci, Dell'amicizia, a cura di Filippo Mignini, Macerata 2005, p. 31.에서, 후반부 24개 문장이 1599년 8월 이후에 첨가되었다고 한다.
- 13) FR N. 482(p.368)의 각주 1, FR N. 483과 D'ELIA 논문 p. 511 참조.; D'ELIA 논문 p. 454에서는 1595년 11월 4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42일) 작성되었다고 한다.
- 14) D'ELIA 논문 p.456.
- 15) D'ELIA 논문 p. 454-455 참조. /교우론 출판에 대한 교회인가 <Imprimatur>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약종의 [주교요지]에 대해 교회인가를 허가한 사람은 주문모 신부였다. (황사영 백서 37행에, '神父准行之'). ; FR. N. 368-각주 6에 의하면, 교우론의 최초 출판자인 蘇大用은 監生으로서, 1588년에 英德의 知縣이 되었는데, 소대용의 교우론 초판본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D'ELIA 논문 p. 462에서, 엘리야 신부는 로마의 Vittorio Emanuele 도서관 소장본(72, c, 467, 1)이 교우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출판본이라고 한다. (p.461의 각주 2와 p. 467의 각주 2 참조.).

어 남창에서 제2판을 출판하였고(昭事上天¹⁶ 之準的也. 萬曆己亥正月穀旦 友人瞿汝夔序), 2
 년 후에는 馮應京¹⁷ 역시 리치의 허락도 없이, 북경에서 1601.2.9.(양력)자의 서문을 넣어 출판
 하였으며(明萬曆辛丑 春正月人日(7일) 明德堂), 李之藻¹⁸도 1603-1608년 사이에 다시 출판해냈
 다. 17)

3-1. 마태오 리치 신부와 미켈레 루지에리 신부는 1583년부터 1588년까지, 5년에 걸
 친 작업 끝에, 葡中辭典도 편찬하였었다. 또한 1598년에 리치 신부가 처음으로 북경에 들어
 갈 때, 종명인 修士^{수사}와 카타네오 신부의 협조를 얻어, 音韻字典도 편찬하였다. 이어서 리치 신
 부는 1605년에 西字奇跡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라틴문 字母를 한자에 붙여 중국어를 공부
 하는 외국인들에게 학습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렇듯이 마태오 리치 신부는 라틴문
 자모를 한문에 붙인 표기법의 창시자가 되었다. 18)

4-1. 리치 신부가 [교우론]에서 인용한 문장들, 즉 名言들의 출처에 대하여, 方豪^{명인} 신
 부가 밝혀냈는데, 저술가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그러나 다음 () 속의 숫자는 필
 자가 다시 확인한 실제 숫자이고, D'ELIA 논문에서도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20개(장)
 이다. 20)

- | | |
|---|------------------------------|
| 聖 Augustinus(奧斯定) 10 (9) 개조, ^성 | Aristoteles(亞里士多德) 6 (7) 개조, |
| Horatius(荷拉西) 1 (0) 개조, | Zeno(才諾) 1 (0) 개조, |
| Cicero(西塞祿) 14 (15) 개조, | Socrates(蘇格拉底) 1 (4장) 개조, |
| Diogenes(第奧杰納斯)Laertius 1(3) 개조, | Seneca(索納加) 7 개조, |

16) D'ELIA 논문 p. 459의 각주 4에서, 구태소가 詩經 大明에 나오는 '昭事上帝'를 帝 대신에 天으로
 변형하였다고 지적한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집중본), 중용자잠, 중용강의보, 상서고훈, 매씨서평,
 春秋考徵에서 '소사상제'를 자주 언급한다.
 춘추 고 징

17) FR N. 482, 626, 632, 706.: D'ELIA 논문p. 456, 459, 512.

18)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2010 도서출판 순교의 맥, p. 149.

19) 沈定平, 이경규의 번역, 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史 XIII, 2010 부산교회사보 68호, p. 82에서 재인용
 한다. 그러나 方豪 신부의 글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확인 할 수는 없지만, 방호 신부도 D'ELIA 논
 문(1952년)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후에 출판된 [성경직해]에 이들의 이름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
 金口若愚에 대하여, 민기, 한중일 가톨릭 어휘사.<한국교회사 논문집 II>, p.603에서, 한글본 [성경직
 해(광익)] 필사본에는 '끼수'였다가, 1893년 활자본[성경직해]에 와서 '금구'로 바뀌었다. 디아스 신부
 의 [성경직해 1636]의 '基所'에서 끼수로, 이어서 金口로 바뀌었다고 한다.

20)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교우론의 20개(장)은 52, 54, 56, 59, 61, 62, 68, 76, 77, 80, 82, 83,
 90, 91, 93, 95, 97, 98, 99, 100장이다.

D'ELIA 논문 464에서, 리치 신부가 인용한 자료를 자세히 밝혀내고 있다. 여러 번 출판된 Andrea d'Evora의 이 책 가운데서, 1590년 빠리 발행의 5판본을 리치 신부가 1595년에 참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3)

4-3. 이 작품은 리치 자신의 이태리어 표현대로, 며칠(40여일) 동안 수집하여 정리한 내용으로서, 어려서부터 암기한 내용을 기억해낸 것과 또 이미 중국에 와서 4서 5경을 공부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포르투갈 출신의 Andrea d'Evora가 편집한 <Sententiae et Exempla, 金言과 模範> 과 <Exemplorum Memorabilium 기억해야 할 模範> 이란 책에서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리치가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 5판 본(1590년 파리 발행)이 북경 북당 성당內 예수회 문서고에 있었고, 이후 북경 라자리스트회 문서고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리치가 정리하고 축약하여 내놓은 이 작품은 Cicero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24)

필자는 리치가 참고하였을 1590년 5판본 I, II 권을 확보하였는데, I 권의 경우에, 1590년 5판본은 1575년과 1612년에 발행된 내용과도 그대로 일치한다. 리치가 교우론에서 인용하였을 내용을 1590년의 빠리 발행 제5판본에서 찾아 (주로 목록index, amicitia우정과 inimicitia적개심), 교우론 원문의 정확한 내용을, D'ELIA 논문 p.426의 Summarium과 p. 462에서 언급한대로, 1598년경 남창에서 리치 자신이 Macerata 同鄉 출신의 예수회 신부 P. Girolamo Costa에게 직접 이태리어로 번역하여 보낸 내용과 結付시켜 (한문 출판 원문과 엘리아 신부의 번역을 종합하여)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Macerata 출신의 예수회원 마태오 리치 신부가 교우론(友論)에 대해 建安 王(卽

발견된다.)/(Biblioteca Naz. Roma, Vittorio Emanuele 消印)/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소순태 교수가 찾아내어 필자에게 제공한, 마태오 리치의 저서 교우론의 번역대본들에 포함되는, Vol I: Sententiae et exempla의 1590년판 전문을, 그리고 Vol II: Exemplorum Memorabilium의 1590년판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595_교우론_번역대본_1590년판.htm ;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52-1610_마태오_리치/1595_교우론_번역대본2_1590년판.htm ; 노용필, 조선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마태오 리치의 교우론,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2008 한국사학, p. 30.에서는 Cicero 15회, Plutarch 14회, Augustinus 11회, Aristoteles 6회, Seneca 6회, Diogenes 5회, Erasmus 2회로 집계하고 있다.

23) FR. N. 482(p.369) 각주 참고.: D'ELIA 논문 p. 464-466에서, 엘리아 신부는 1933/34년에 북경 북당의 도서관에서 lazzaristi 신부들의 허락 하에 Andrea d'Evora의 책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도서관 司書 P. H. Verhaeren 과 함께, 교우론의 원전이 되는 글을 모두 찾아냈다.(20개는 미확인)..

24) FR N. 482. 각주 1번에서 D'Elia 신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D'ELIA 논문 p.464에서도 그가 직접 북당 도서관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리치가 이 책을 참고한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하고 있다. 또 라틴어보다 중국어 문장이 더 긴 경우를 보면, 리치가 다른 자료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Matteo Ricci, Dell'amicizia, a cura di Filippo Mignini, Macerata 2005., p. 15-20 참조.

乾齊)에게 대답한 내용으로서, 이는 같은 著者(=리치)가 중국어를 이태리어로 번역한 것이다.;

Proemio, 머리말/ 答建安王 <即乾齊子> 友論
답 건안 왕 즉 건 제 자 우 론
大西 洋 耶 穌 會 士 利 瑪 竇 述.
대서양 야 소 회 사 리 마 두 술

1. ‘(저) 마태오는 太西(ultimo occidente)로부터 航海하여 中華에 들어왔습니다.
태 서 항해 중화
위대한 明나라 天子의 文德과 옛 先王들이 물려준 가르침을 우러르며, 몇 해(星霜)를 嶺表(=
명 천자 문덕 선왕 성상 영 표
梅嶺/廣東省과 江西省 경계)에 아래에 거처(卜居/卜室)하며 지내왔습니다. 올봄에 그 산(梅
매 령 광 동 성 강 서 성 북거 북 실 매
嶺)을 지나 강을 따라 오던 중, 金陵(南京)에 도착하여, 上國의 화려한 모습을 보자 저는 더 없
령 금 룡 남경 상국
이(沾沾) 기뻐하며, 이 여행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최종(遠) 목적지(=북경
첨 첨 원
이나 흑 남경)를 찾아보기 전에(遠覽未周覽), 豫章(南昌/강서성의 省都=省會)으로 되돌아와
원 랑 미 주람 예 장 남 창 성 도 성 회
(返棹) 南浦에 배를 대고(停舟), 西山을 바라보니, 秀麗하고 奇異하여(玩奇挹秀) 이 땅에
반 도 남 포 정 주 서산 수려 기이 완 기 읍 수
秀才들이 모여들 만하다고(淵藪) 여겼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低回留) 떠날 수가 없어
수재 연수 저 회 류
서, 배에서 내려 집을 한 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리치의 이태리 원문엔, 친구의 도움으
로) 건안 왕을 赴見(謁見)하게 되었으니, 저를 천대하지 않으시고(荷不鄙) (오히려 과분하게)
부 견 일현 하 불 비
長揖으로(磕頭가 아니라, 두 손을 모아 올리고 내리는 큰 인사長揖) 받아주셨고, 賓席에 좋은
장읍 개 두 장읍 빈 석
술로 큰 宴會를 열어주셨습니다.(醴醕甚). 연회가 끝나 상을 치울(移席) 즈음에 왕께서는 저에
연회 레 환 심 이 석
게 握手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 제 지역에서 德과 行實(識見)이 있는 君子를 만날 적마다, 저는 벗으로 삼고 尊敬하려고
덕 행실 식견 군자 존경
했습니다.(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太西邦은 25) 道義에 基礎한 邦域이니, 友道를 어떻게
태 서 방 도의 기초 방역 우도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오는 물러나와, (머칠 동안 安居하며), 어려서부터(曩昔) 들어왔던 기억을 떠올
안거 낭 석
려, 友道에 대해 한 帙을 마련하였으니(輯成), 다음(左)과 같이 삼가 陳述(敬陳)합니다.”
우도 질 집 성 좌 진술 경 진

26)

25) D'ELIA 논문 p. 471-각주1번: / 1595년 당시에는 歐羅巴란 용어가 없었을 것이다.
26) 이태리어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고문서고(Archivio della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Ms. 292, pp. 189-200.에 있다./cf. D'ELIA 논문 p.462에 의하면, 리치의 Macerata 고향 동료신부 P. Girolamo Costa에게 보낸 1599.8.14.일자 편지에, ‘4년 전에 남창에 와서 작성한 것을 이태리어로 보낸다.’고 하였다.(일부는 한문으로도 보냈을 것이다./p.463-n.1; 또한 p.463-n.2에서, 이 문서가 1825년과 1885년에 2번 이태리어로 출판되었다고 한다.). ; 한문본은 소순태 교수가 제공한 예수회 로마 고문서고의 영인본과 D'ELIA 논문의 영인본을 인용한다.; 한문본 교우론의 총 100개의 장들 가운데서, 다음 번호의 24개의 장들이 리치 신부의 이태리어 교우론에는 없다./=교우론 00장 번호= 14, 17, 38, 60, 64, 71, 72, 73, 74, 75, 78,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7. 이 당시에는 교우론 76장이 제시되었는데, 리치의 이태리어 원문에는 78개의 번호가 적혀있다.

교우론 원문 (1601 북경)	한글 번역 (2019)	리치의 이태리어 (1598 남창)	A.d'Evora의 라틴어(1590 빠리)	비고/라틴어번역 (2019. 6.)
<p>교우론 1장</p> <p>吾友非他, 오 우 비 타 即我之半, 즉 아 지 반 乃第2我也. 내 제 아 야</p> <p>故當視友如己焉. 고 당 시 우 여 기 언</p> <p>(로마 예수회 고문서고 영인본 5b).</p>	<p>나의 벗은 남이 아니라, 즉 나의 반쪽이므로, 곧 제2의 나이다.</p> <p>그러므로 당연히 벗을 자기 자신처럼 여겨야 한다.</p>	<p>2. L'amico non é altro che la metà di me o un altro io. Onde é necessario trattar l'amico come se stesso.</p>	<p>A m i c u s , a n i m a e d i m i d i u m . Augustinus 3. Confessio. (p 61b). + Amicus se debet habere ad amicum tamquam ad seipsum, quia amicus est alter ipse. Aristoteles Eth.4. (p 55a)</p>	<p>벗은 영혼(나)의 반 쪽 이 다 . /Augustinus.</p> <p>+ 벗은 제 2의 자신이기 때문에, 벗을 벗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처럼 여겨야 한다. /Aristoteles</p>
<p>교우론 2장</p> <p>友之與我, 우 지 여 아 雖有二身, 수 유 이 신 二身之內, 이 신 지 내 其心1而已. 기 심 이 기 (영인본 5b).</p>	<p>벗과 나는 비록 두 몸들을 가지고 있지만, 두 몸들 안에 있는, 그 심장 (心, 심 heart) 27) 은 다만 하나일 뿐이다.</p>	<p>3. Seben l'amico et io habiamo doi c o r p i , nondimeno ne i due corpi per lo stretto v i n c o l o dell'amore, si dice esservi una sola anima et' un' sol cuore.</p>	<p>Amicus una anima est in d u a b u s corporibus habitans. Aristot. Apud Diog. lib. 5. (p 55b).</p>	<p>벗과 나는 두 몸으로 있지만, 하나의 영혼이다. /Aristoteles</p>
<p>교우론 3장</p> <p>相須相佑, 상 수 상 우 爲結友之由. 위 결 우 지 유</p>	<p>서로 의존함(相 상 須) 28) 및 서로 도움(相佑)이 벗</p>	<p>4. Il tener bisogno l'un dell'altro e soccorrersi insieme é principio dell'amicitia.</p>	<p>Omnis ratio et institutio v i t a e : adiumenta hominum desiderat: imprimisque ut habeas, quibuscum familiares</p>	<p>삶의 이유와 근거는: 사람을 돕기를 바라는 것인데: 특별히 (가족들이) 간직하도록, 너는 누구에게나 가훈으로 권고할 수 있다./ Cicero.</p>

<p>(영인본 5b).</p>	<p>(의 관계)을 맺는 이유이다.</p>		<p>sermone conferre possis. <u>Cicero</u>. 1 Offic. (64b). <= + 내견해/ Amicitia aequitas est reciprocae benevolentiae. <u>Aristot.</u> Apud Diog. lib.5. (p 55b).</p>	<p><= + 내견해/ 우정은 상호 호의(친절)를 베푸는 것과 같다. /Aristoteles</p>
<p>교우론 4장 孝子繼父之所 <small>효자 계부지소</small> 交友, <small>교우</small> 如承受父之產業 <small>여 승수부지산업</small> 矣. <small>의</small> (영인본 5b).</p>	<p>효자가 부친의 교우관계를 繼承<small>계승</small>하기를, 부친의 產業<small>산업</small>을 이어받듯이 해야 한다.</p>	<p>5. Il figliolo obediante piglia e continua l'amicitia del Padre morto insieme co' l'heredità di esso.</p>	<p><= Filus sicut in substantia derelicta, ita in paterna amicitia succedere debet. <u>Socrat.</u> apud eund. de vitand. usur. (p. 55a).</p>	<p>아들이 (부친의) 남겨진 재산을 이어 받듯이, 또한 아버지의 우정도 계승해야 한다. /Socrates.</p>
<p>교우론 5장 時 29) 當平居 <small>시 당평거</small> 無事, <small>무사</small> 難指友之眞僞, <small>난지우지진위</small> 臨難之頃, <small>임난지경</small> 則友之情顯焉. <small>즉우지정현연</small> 蓋事急之際, <small>개사급지제</small> 友之眞者益近密, <small>우지진자익근밀</small> 僞者益(疎) 疏散 <small>위자익소 소산</small> 矣. <small>의</small> (영인본 5b,6a).</p>	<p>平素에 아무 탈 없이 지낼 때는, 벗의 眞僞를 가려내기 어렵지만, 災難이 닥치면, 곧 벗의 性情이 드러나게 된다. 危急한 지경에 처하게 될 때, 참된 벗은 더욱 가까이 모여들지만, 거짓된 벗은 흩어져 헤어지게 된다.</p>	<p>6. Quando non habiamone ssun travagli o negotio difficile, é difficil cosa conoscer i veri dai falsi amici: ma subito che si cade in qualche avversità, si scuopre parimente la verità ; per cio che allora i veri</p>	<p><= ++ 내 견해 /cf. Amici secundis in rebus advocati adsint: in calamitatibus autem sua sponte, atque invocati. <u>Demosthe</u>.ibid. (55b).</p>	<p><= ++ 내 견해 벗들이란 (내가) 榮華로울 땐 청해야 (마지못해) 오지만, (내게) 災殃이 닥쳤을 땐 부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온다. /Demosthenes. (교우론 64장 참조).</p>

		<p>amici si mostrano et avvicinano più, ma i falsi e simulati s'allontanano e fuggono.</p>		
<p>교우론 6장</p> <p>有爲之君子, 無異仇, 必有善友. < 如無異仇以加 傲, 必有善友以 相資 >. 경 (영인본 6a).</p>	<p>훌륭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有爲) 君子에게 는, 특별한(異) 원수가 전혀 없 고(無), 좋은 벗 들이 반드시 있 다. <마치(如) 더욱 傲備(警戒)하 게 하는 특별한 원 수가 전혀 없고, 서로 돕는 좋은 벗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같 은 말이다. ></p>	<p>7. L'uomo che fece nel mondo fatti heroici, 0 hebbe qualche grande inimico che lo fece star molto sopra di sé, ovvero al certo hebbe qualche buono amico che l'aiutasse.</p>	<p>Ad salutem opus est vel bonis amicis, vel acribus inimicis. <u>Diogen.</u> apud Plut. de amici et adul. (55b).</p>	<p>안녕에는 선한 벗들이든 악랄한 원수들이든 (모 두) 필요하다. <u>/Diogenes Laertius.</u></p>
<p>교우론 7장</p> <p>交友之先宜察, 交友之後宜信. (영인본 6a).</p>	<p>벗을 사귀기 전 에는 宜當히 살 피지만, 사귄 다 음에는 마땅히 信賴해야 한다. 신뢰</p>	<p>8. Bisogna ben considerar prima di far amicitia con alcuno; ma poi ch'è fatta l'amicitia conviene fidarsi dell'amico.</p>	<p><= Post amicitiam credendum est, ante amicitiam judicandum. <u>Senec.</u> Epist. 3. (p. 60a)</p>	<p>우정은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는 (마땅히) 믿 어야 한다. <u>/Seneca.</u> (교우론 49장이 후반부이다.)</p>
<p>교우론 8장</p> <p>雖智者亦謬計己 友. 우</p>	<p>비록 지혜로운 자라도 자기 벗 을 잘못 계산하 여, 실제보다 더 많다고 한다. < 어리석은 사</p>	<p>9. Anco gli savij s'inganano e pensano d'haver più amici che</p>	<p>In hoc errore versatur vel prudentissimu s quisque, quod plures suos, quam</p>	<p>혹 아주 지혜로 운 사람이라 하 더라도 (자기 벗 이) 실제보다 더 많다고 여기는 이런 오류에 기</p>

<p>多乎實矣. 다 호 실 의</p> <p>< 愚人妄自侈口, 우인 망 자 치 구 友似有而還無, 우 사 유 이 환 무 智者抑或謬計, 지자 역 혹 류 계 友無多而實少>. 우 무 다 이 실 소 (영인본 6a).</p>	<p>람은 스스로 그 수(口)를 분수에 넘게 하여, 없는 벗을 바꾸어 있는 것처럼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혹 셈에 誤謬를 범한다 해도, (그) 벗이 많지 않다고 하면 實際로도 적다. ></p>	<p>realmente non hanno. < Ma gli stolti senza consiglio contano gli amici ch'hanno di parola, che sono molti, ma in fatti non n'hanno nessuno. ></p>	<p>s u n t , arbitratur. <u>Plin. Iun.</u> lib. 3. (60b 끝).</p>	<p>울어진다. <u>/Plinius Iunior</u></p>
<p><u>교우론 9장</u></p> <p>友之饋友而望報, 우 지 궤 우 이 망 보 非饋也, 비 궤 야 與市易者等耳. 여 시 역자 등 이 (영인본 6a).</p> <p>* 28장의 賈人. 고인</p>	<p>벗에게 供饋(음식 提供)하고 報償을 바라면, 그것은 供饋가 아니라, 시장의 점쟁이(易者) 등에 參與하는 것이다.(28장참조).</p>	<p>10. L'amico che da presenti all'amico, e n'aspetta ricompensa, é simile ad un mercante della piazza.</p>	<p>Virtus est amicitia non qua est usus. <u>Ambr.</u> 3. de off. (62a).</p>	<p>우정이란 덕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u>/Ambrosius.</u></p>
<p><u>교우론 10장</u></p> <p>友與仇, 우 여 구 如樂與鬧, 여 악 여 요 - 皆以和否辨之耳, 개 이 화 부 변 지 이 故友以和爲本焉. 고 우 이 화 위 본 언 以和, 이 화</p>	<p>벗과 원수는 노래와 시끄럽게 떠들(喧嘩)과 같아서, 모두 和습하느냐 마느냐로 辨別되며, 그러므로 友情은 和습함을 根本</p>	<p>11. L'amicitia é simile all'harmonia e consonanza nella musica: e dove non é concordia e consonanza, vi é dissonanza,</p>	<p>Concordia in civitatis est, q u o d harmonia in musica. <u>Aug.</u> lib. 2 de civ. Dei. (67a). *본문의 주기가 리치의 이태리어 본에는 없으나,</p>	<p>국가 (공동체)의 화합은 음악에서 조화(하모니)와 같다. <u>/Augustinus.</u> *본문의 주기에 대한 엘리야</p>

27) “漢語大辭典”에 제시된 설명과 같이, 아래 주소의 소순태 교수의 글을 참조하여, ‘心’을 ‘사유기관(思惟器官)으로서의 심장’으로 번역하였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15.htm>

28) “漢語大辭典”에 제시된 설명을 따르고 있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소순태 교수의 글을 참조하여, 예를 들어 마태오 리치 신부의 “천주실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相須’를 ‘서로 의존함’으로 번역하였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59.htm>

29) 천학초함 영인본, 羅光 主教, 중화민국 53년(1964) 臺北市발행, p.300에서는 特자로 바꾸어 썼는데 (교우론 5장), 이지조가 [천학초함]을 발간하면서, 時를 特으로 바로잡았을 것이다.(소순태 교수 견해).

<p>微業長大, 미 업 장대 以爭, 이 쟁 大業消敗. 대업 소 패</p> <p>< 樂以導和, 악 이 도 화 關則失和. 요 즉 실 화 友和則如樂, 우 화 즉 여 악 仇不和, 구 불화 則如關. > (영인본 6a).</p>	<p>으로 삼는다. 화합하면 微小한 것도 長大하게 되나, 鬪爭하면 큰 것도 무너져 사라진다. <음악은 和音으 로 引導하나, 소 란은 화음이 없 다. 우정과 和습 은 음악과 같고, 仇恨(怨望)과 불 화는 곧 소란과 같다. ></p>	<p>contentione et inimicitia. E q u e s t a concordia é cosa molto importante nell'amicitia, perciocché con la concordia le cose piccole crescono et con la discordia se grandi si disfanno.</p>	<p>엘리아 신부의 이태리어 번역본 / < La musica c o n d u c e all'armonia, mentre il frastuoso manca di armonia . L'amicizia e la c o n c o r d i a sono come la m u s i c a ; l'inimicitia e la discordia sono come il frastuono. ></p>	<p>신부의 이태리어 번역본/ < 음악은 和音 으로 引導하나, 소란은 화음이 없다. 우정과 和습은 음악과 같고, 敵意(원망) 와 불화는 소란 과 같다. ></p>
<p>교우론 11장</p> <p>在患時, 재 환 시 吾惟喜看友之面. 오 유 희 간 우 지 면</p> <p>然或患或幸, 연 혹 환 혹 행 何時友無有益? 하 시 우 무 유익</p> <p>憂時減憂, 우 시 감 우 欣時增欣. 흔 시 증 흔 (영인본 6a).</p>	<p>患難을 만났 을 때, 나는 오 로지 벗의 얼굴 만 보아도 즐거 워진다.</p> <p>환난 중이건 혹 은 행복 중이건 간에, 어느 때 (何時)라도 벗이 유익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p> <p>憂患 중에는 憂鬱함을 덜어주 고, 기쁠 때에는 欣快함(喜悅)을 더하는 것(벗)이 다.</p>	<p>12. L'amico che sta in calamità si rallegra col v e d e r solamente la f a c c i a dell'amico. E con tutto ciò o in tempo di calamità o di prosperità, quando mai lasciò d'esser utile l'amico? P o i c h é nell'avversità fa diminuir la tristezza e n e l l a prosperità fa a u m e n t a r l'allegrezza.</p>	<p>Non afflicto tantum dulce est vultum intueri viri benevolentis, verum in u t r a q u e f o r t u n a praesto est amicitia, non m i n u s voluptatem, et g r a t i a m addens bonis, quam malis m o l e s t i a m adimens, et desperationem . Plut. de amic. et adul. (55a).</p>	<p>호의적인 사나이 의 얼굴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즐 거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p> <p>실로 어느 때건 간에, 우정은 행 복 중에 적지 않 은 만족과 후의 를 더해주고, 불 행 중에도 번민 과 실망을 덜어 준다. /Plutarchus.</p>
<p>교우론 12장</p>	<p>적을 殘酷하게 잔혹</p>	<p>13. E' più</p>	<p>Acrior in</p>	<p>惡意의 악랄한 악의</p>

<p>仇之惡以殘仇, 구 지 오 이 잔 구 深於友之愛以恩 심 어 우 지 애 이 은 友. 우</p> <p>豈不馬念(驗)世 개 불 마 념(驗) 세 之弱于善, 지 약 우 선 强于惡哉. 강 우 악 재 (영인본 6a).</p>	<p>대하는 원수의 憎惡가, 은혜를 증오 베푸는 벗의 愛情보다 그 애정 程度가 더 지나 정도 치다(深). 심</p> <p>그러니 세상이 선에는 약하고, 악에는 강하다는 證驗이 어찌 아 증험 니겠는가?</p>	<p>potente l'odio del nimico per far male all'inimico, che non é l' amore dell'amico per giovar all'altro amico. Di qua si raccoglie esser il mondo fiacco al bene e molto gagliardo al male.</p>	<p>nocendo est malignitas, quam in iuvando amicorum dilectio. <u>Menand.</u> apud Plut. de amic. et adul. (55b).</p>	<p>害惡이 벗들의 해악 애정 어린 보살 핌보다 더 深하 심 다. <u>/Menandros?.</u></p>
<p>교우론 13장</p> <p>人事情莫測, 인 사정 막 측 友誼難憑. 우의 난 병</p> <p>今日之友, 금일 지 우 後或變而成仇, 후 혹 변 이 성 구</p> <p>今日之仇, 금일 지 구 亦或變而爲友, 역 혹 변 이 위 우</p> <p>可不敬慎乎. 가 불 경신 호 (영인본 6ab).</p>	<p>인간의 (속)事情 사정 을 推測할 수 추측 없으니, 友誼도 우의 憑信(빙거로 삼 빙 신 아 믿음)하기 어 렵다.</p> <p>오늘의 벗이 후 에 변하여 혹 원 수가 되기도 하 고, 오늘의 원수 가 역시 변하여 혹 벗이 되기도 하니, 敬啓하고 경계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14. Gl'humani affetti son mutabili né possono ben intendersi: come né le cose dell'amicizia possono ben risolversi? E quel ch'hoggi m'é amico, può esser che mi diventi inimico; et al contrario quel ch'hora m'é inimico, forsi che depoi me sarà amico. Hor non é bene esser cauto?</p>	<p>교우론 13장과 의 연관성이 부 족하다. / Sic in amicitia versari debemus tamquam meminerimus eam ad ad gravissimas iniurias posse converti. <u>Valerius Maximus</u> lib.7. (60b).</p>	<p>내용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 / 우리가 우정 에 힘을 쏟아야 하는 그만큼, 아 주 심대한 불의 들을 고칠 수 있 기 위해서는, 우정을 기억(의 존)해야 할 것이 다. <u>/Valerius Maximus.</u></p>
<p>교우론 14장</p>	<p>내가 행복할 때 만 交際 하려는 교제</p>	<p>* 14장에 대한 리치의 이태리어</p>	<p>Amicus certus in re incerta</p>	<p>+ 내견해cf.26장</p>

<p>徒試之于吾幸際, 도 시 지 우 오 행 제 其友不可恃也. 기 우 불가 시 야</p> <p>< 脉(脈)以左手 맥 맥 이 좌수 驗耳, 左手不幸 험 이 좌수 불행 際也 > (영인본 6b).</p>	<p>그 벗은 믿지 (恃賴) 말아야 한다.</p> <p>< 脈은 왼손으 로 재는데, 왼 손은 불행을 分際(重劑) 한 다. ></p>	<p>번역은 없고, 엘 리야 본/Se lo metto alla prova soltanto durante il tempo della mia prosperità non si potrà f a r e assegnamento sopra questo amico.</p>	<p>cernitur. <u>Cic.</u> in Laelio. (p 61a). 한문본 각주에 대한 엘리야의 이태리어 번역/ < Il polso si tasta alla mano sinistra: la mano sinistra é d u n q u e l'intermediaria nelle distrazie >.</p>	<p>/</p> <p>확실한 벗은 불 확실한 사건(불 행) 속에서 가 려진다. <u>/Cicero.</u></p> <p>엘리야의 한문 번역/ < 脈은 왼손을 재는데, 왼손은 불행을 分際(重劑) 한 다. ></p>
<p><u>교우론 15장</u></p> <p>既死之友, 기 사 지 우 吾念之無憂. 오 념 지 무 우</p> <p>蓋在時我有之如 개 재 시 아 유 지 여 可失, 가 실 及既亡, 급 기 망 念之如猶在焉. 념 지 여 유 재 연</p> <p>(영인본 6b-7a).</p>	<p>이미 죽은 벗을 나는 슬픔이 없 이 기억(記念)한 다.</p> <p>(벗이 세상에 살 아) 있을 때도 나는 그를 잃을 수 있는 것처럼 대하였고, 이미 죽은 후에는, 아 직도 옆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기 때문이다.</p>	<p>15. Io mi ricordo de gl'amici morti s e n z a tristezza: perciocché quando erano vivi, gli tenevo come cosa che p o t e v o perdere; et hora che son morti, mi ricordo d'essi come se fossero vivi.</p>	<p><= Mihi defunctorum amicorum cogitatio dulcis est, habui enim illos tamquam amissurus, amisi tanquam h a b e a m . <u>Senec.</u> Epist. 63. (p. 61b).</p>	<p>죽은 벗들에 대 한 생각은 내게 즐거움을 주니, 그들을 (비록) 잃었지만, 지금 도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u>/ Seneca.</u></p>
<p><u>교우론 16장</u></p> <p>各人不能全盡 각인 불능 전 진 各事, 각사 故上帝³⁰命之 고 상제 명 지 交友, 교우 以彼此胥助. 이 피차 서 조</p>	<p>각(모든) 사람들 이 모든 일에 完全(完璧)을 다 하기란 불가능하 다. 그러므로 上帝께서는 벗을 사귀도록 명하시 어, 피차 서로</p>	<p>16. Non può ogn'huomo per se stesso far ogni cosa, et però Iddio c o m a n d o l'amicitia, a c c i ò s'aiutasse l'un</p>	<p>Quia non possumus per nos omnia agere(alius enim alia re est magis utilis), idcirco amicitia e</p>	<p>우리가 모든 일 을 다 할 수는 없다.(타인이 다 른 일에는 더 적 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정은 공동의 편익을 위해서 서로간의</p>

<p>若使除其道於世 <small>약사제기도어세</small> 者, <small>자</small> 人類必散壞也. <small>인류 필산괴야</small> (영인본 7a).</p>	<p>돕도록 하신 것 이다. 만약 세상에서 그 <small>도리</small> 道理(우정)를 除去해버린다면, <small>제거</small> 人類는 반드시 <small>인류</small> 흩어져 무너져버 리고 말 것이다.</p>	<p>l'altro. Onde se si toglie l'amicitia dal mondo, senza dubbio ch'il mondo si disfarà.</p>	<p>comparantur, ut commune commodum mutuis officiis gubernetur. <u>Cic.</u> pro Rosc. (60b).</p>	<p>업무를 조정하게 한다. / <u>Cicero.</u></p>
<p>교우론 17장 可以與竭露發予 <small>가이여갈로발여</small> 心, <small>심</small> 始爲知己之友也. <small>시위지기지우야</small> (영인본 7a).</p>	<p>내 <small>심</small> 心(심)을 다 드러내(<small>竭</small> <small>갈</small> 論) 보일 수 있 을 때, 비로소 知己之友(知己의 <small>지기지우</small> 지우 關係)가 시작된 다.</p>	<p>Ricci는 없고, 엘리야의 번역문 / Colui al quale posso completamente manifestare il mio cuore, comincia ad essere mio intimo amico.</p>	<p>Illum in amicitiam recipere debemus cui omnia nostra audeamus. <u>Aug.</u> lib.8 Quaest.(62a).</p>	<p>우리가 그를 벗 으로 받아들여려 면,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 청(수용)해야 한 다. / <u>Augustinus.</u></p>
<p>교우론 18장 德志相似, <small>덕지상사</small> 其友始固. <small>기우시고</small> (영인본 7a).</p>	<p>덕을 실천하려는 意志가 서로 같 <small>의지</small> 으면, 비로소 그 우정이 堅固하게 <small>견고</small> 된다.</p>	<p>17.Se saranno gl'amici simili nel desiderio della virtù, all' hora l'amicitia sarà soda.</p>	<p>Morum et studiorum similitudo conciliatrix amicitiae est. <u>Plut.</u> de tranquill. anim. (55a).</p>	<p>예의와 학문의 유사성이란 우정 을 매개(연결)하 는 것이다. / <u>Plutarchus.</u></p>
<p>교우론 19장 正友不當順友, <small>정우부당순우</small> 亦不當逆友, <small>역부당역우</small> 有理者順之, <small>유리자순지</small> 無理者逆之. <small>무리자역지</small> 故直言獨爲友之 <small>고직언독위우지</small> 責矣. <small>책의</small> (영인본 7a).</p>	<p>올바른(正) 벗은 <small>정</small> 항상 順應(찬성) <small>순응</small> 하지도 않고, 항 상 반대하지도 않는다. 道理에 맞으면 따르고, 無理하 <small>무리</small> 면 반대한다. 그러므로 直言하 <small>직언</small> 는 것만이 오로 지 벗의 責務이 <small>책무</small></p>	<p>18. L'amico retto non sempre fa a v o g l i a dell'amico né sempre gli contraddice: quando ha ragione, lo segue e quando non, gli resiste: perche il dir il vero é proprio</p>	<p><= Qui verus est amicus, is nec imitatur omnia, nec facile laudat omnia, sed optima tantum. <u>Plut.</u> ibid.(p. 55a). <=순서를 바꿔 Libertas loquendi propria amicitiae.</p>	<p>진정한 벗은 모 든 것을 따르지 도 않고, 모든 것을 쉽게 칭찬 하지도 않으며, 오직 최선을 다 (선택)한다. / <u>Plutarchus.</u> 말을 해주는 것 (자유)이 바로 우정의 固有性 <small>고유성</small> (特性)이다. <small>특성</small></p>

	다.	o f f i t i o dell'amico.	<u>Plut.</u> ibid.(55a/ 바로앞).	<u>/ Plutarchus.</u>
<p>교우론 20장</p> <p>交友如醫疾然, 교우 여 의 질 연 醫者誠愛病者, 의자 성 애 병자 必惡其病也. 필 오 기 병 야</p> <p>彼以(球) 救病之 피 이 구 구병 지 故, 고 傷其體苦其口. 상 기 체 고 기 구</p> <p>醫者不忍病者之 의자 불인 병자 지 身, 신 友者宜忍友之惡 우 자 의 인 우 자 악 乎? 호</p> <p>諫之諫之. 간 지 간 지</p> <p>何恤其耳之逆, 하 흘 기 이 지 역 何畏其額之蹙! 하 의 기 액 지 축 (영인본 7ab).</p>	<p>벗과의 사귄은 의사가 병을 치 료하는 것과 같 아서, 의사가 병 자를 誠心_{성심}껏 사 랑하면, 반드시 그 병을 미워하 게 된다.</p> <p>그 병을 치료하 려면, 그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입을 쓰게 만든 다.</p> <p>의사가 병자의 몸을 가만두지 않거늘, 벗이 되 어서 벗의 악을 容忍_{용인}해서야 되겠 는가?</p> <p>충고하고, 諫言_{간언} 하라.</p> <p>어찌 그 귀에 거 슬릴까 염려하 며, 그 이마를 찡그릴까 두려워 하라!</p>	<p>19. L'amico é come il medico, il quale invero ama l'infermo et' odia l'infermità. Hor, s'il medico per s a n a r l'infermo non perdona al corpo, ma lo ferisce e gli dà il boccone a m a r o , l' a m i c o perdonerà alli v i t i j dell'amico? Riprendilo, riprendilo.</p> <p>Hai forse compassione all'orecchie c h e ricalcitano de udire? Hai forse paura delle rughe che egli fa in fronte?</p>	<p><= Amicus est similis medico, medicus non a m a t aegrotum, si non odit aegritudinem, ut aegrotum liberet, febrem persequitur. Nolite amare v i t i a amicorum qui amatis amicos vestros. <u>Aug.</u> in quo serm.(p 61b)</p> <p>+Amicus, vitae medicamentu m. <u>Aug.</u> lib.6 de Civ. Dei.(p. 61b)</p>	<p>벗은 병을 좋아 하지 않는 의사 와 같은데, 의사 가 병자를 구하 고 열을 내리게 하려면, 병을 미 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p> <p>너희들이 벗으로 서 사랑하고 있 지만, 벗들의 不法_{불법}만은 사랑하 지 마라. <u>/ Augustinus.</u></p> <p>+ 벗은 인생의 치료제이다. <u>/ Augustinus.</u></p>
<p>교우론 21장</p>	벗의 칭찬이나, 및 원수의 비방	29. Né alle l o d e	<= Amicus l a u d a n t i	벗의 칭찬도, 원 수의 비방도 모

30) 엘리야 문헌 476의 각주 2에서, 1595년의 교우론에서 사용된 上帝_{상제}는, 아마도 리치가 하느님의 칭호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서, 교우론 56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식스토 5세 교황이 중국 황제에게 보낸 小勅書(Breve 1588년)에서는 上帝_{상제}가 중국 황제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cf. TV, II, Tav. IV di p. 494).

<p>友之譽, 우 지 예 及仇之訕, 급 구 지 산 竝不可盡信焉. 병 불가 진 신 언 (영인본 7b).</p>	<p>을, 함께 竝行하 병행 여 다 믿어서는 (盡信) 안 된다. 진 신</p>	<p>degl'amici né alli vituperij de gl'inimici si d e v e intieramente da credito.</p>	<p>credendum non est, sicut ne(c) inimico detrahenti. <u>Aug.</u> in quo serm.(p 61b). + Sicut nec i n i m i c o detrahenti, ita nec amico l a u d a n t i , credendum est. <u>August.</u> lib.3 cont. lit. petit. (p. 63b).</p>	<p>두 믿을 바가 아 니다. / <u>Augustinus.</u> + 원수의 비방 처럼 벗의 칭찬 도 역시 믿어서 는 안 된다. / <u>Augustinus.</u></p>
<p><u>교우론 22장</u> 友者於友處處 우 자 여 우 처 처 時時1而己. 시시 이 기 誠無近遠內外 성 무 근 원 내외 面背異言異情也. 면배 이 언 이 정 아 (영인본 7b).</p>	<p>벗이 된 자는 벗 에게 언제 어디 서나 한결같아야 한다. (벗에 대한) 誠心은 멀리 있 성심 건 가까이 있건, (집) 안이나 밖, 면전에 있으나 등 뒤에 있으나, (그) 말도 느낌 도 달라지지 말 아야 한다.</p>	<p>21. L'amico verso l'amico sempre ha da esser l'istesso. //e certo non ho da far differenza s'egli stia lontano, o presente, o vicino: né hanno da e s s e r differenti le p a r o l e dall'affetto dell'amico.</p>	<p>A m i c o r u m absentium, et praesentium a e q u e memores esse d e b e m u s . <u>Thal.</u> apud Diog. lib.1. (55b). <= + 내견해 cf. Inconstantia f a s t i d i t a m i c o s . <u>Menand.</u> Apud Plut. de Amic. adulat.(p 55b).</p>	<p>벗들이 앞에 있 건 없건,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기억해야 한다. / <u>Thales?.</u> <= + 내견해 cf. 변덕은 벗들을 넌더리나게 한 다. / <u>Menandros?.</u></p>
<p><u>교우론 23장</u> 友人無所善我, 우인 무 소 선 아 與仇人無所害我, 여 구인 무 소 해 아 等焉. 등 언 (영인본 7b).</p>	<p>나에게 선한 바 가 전혀 없는 벗 과, 그리고 나에 게 해를 끼치는 바가 전혀 없는 원수는, 同等하 동등 다.</p>	<p>22. L'amico che non mi fa nissun bene é s i m i l e all'inimico che non mi fa nessun male.</p>	<p><= Tantum d i l i g o inimicum, qui mihi nihil facit mali, q u a n t u m amicum, qui mihi nihil facit bono.</p>	<p>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 수를,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벗만큼, 나는 사 랑한다. / <u>Cassiodorus.</u></p>

			<p><u>Cassiodo.</u> in quad epist. (p. 62b).</p>	
<p>교우론 24장</p> <p>友者過譽之害, 우 자 과에 지 해, 較仇者過訾之害, 교 구 자 과 자 지 해, 猶大焉. 유 대 언.</p> <p>< 友人譽我, 우인 예 아 我或因而自矜, 아 혹 인 이 자금 仇人訾我, 구인 자 아 我或因而加謹.> (영인본 7b).</p>	<p>벗이 된 자의 지나친 칭찬의 해로움은 원수진 자의 지나친 비난의 해로움에 견주었을 때에, 오히려 더 크다.</p> <p>< 벗의 칭찬으로 인하여 혹시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원수의 비난으로 인하여 내가 좀 더 조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	<p>23. Il male che fa l'amico col soverchio lodar' é maggior del male che fa l'inimico col soverchiament e biasmar, < Perciò che con le lodi dell'amico <u>forsi</u> diventarò superbo et' li vitupperij dell'inimico mi possono servir per star più cauto. ></p>	<p><= Gravius me laedunt amici supra modum laudantes, quam inimici detrahentes. <u>Erasm.</u> in Epist. (p 62b).</p>	<p>벗들의 <u>過讚은</u> 원수들의 비난보다 더 해롭다. / <u>Erasmus.</u></p>
<p>교우론 25장</p> <p>視財勢友人者, 시 재 세 우인 자 既財勢亡卽退而離焉. 기 재 세 망 즉 퇴 이 리 언.</p> <p>謂既不見其初友之所以然, 위 기 불 견 기 초 우 지 소이 연 則友之情遂渙也. 즉 우 지 정 수 환 야 (영인본 7b/8a).</p>	<p>벗의 재물과 勢力을 보는 사람은, (그) 재물과 세력이 없어지면, 곧 물러나 떠나간다.</p> <p>(그러면서) 이르기를: 처음에 (보았던) 그 우정의 이유(소이연)가 이미 보이지 않으니, 곧 우정의 느낌도 끝내 흩어졌다고 (말)한다.</p>	<p>24. Chi nel far amicitia hebbe la mira alle ricchezze e dignità dell'amico, se quelle si perdono, l'amicitia ancora si disfà o ritira.</p>	<p>Qui fortunis alicuius inducti amicitiam eius secuti sunt, ii simul atque fortuna elapsa est, devolant omnes: cum enim recessit res ea, quae fuit consuetudinis causa, nihil superest, quare possint in amicitias retineri. <u>Cic.</u> 4. ad</p>	<p>우정을 따라서 행운에 들어선 사람들은, 행운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모든 (행운과 우정) 것들이 날아 가 버린다.: 그러므로 평소처럼 행운이 물러가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우정에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 <u>Cicero.</u></p>

			Herennium. (60b).	
<p>교우론 26장</p> <p>友之定, 우 지 정 於我之不定事試 어 아 지 부정 사 시 之, 지 可見矣. 가 견 의 (영인본 8a).</p>	<p>定評이 있는 벗 정평 은, 내가 불확실 한 사건에(試鍊) 시련 처해있을 때, 알 아볼 수 있다.</p>	<p>25. L'amico certo si vedrà chiaro nelle mie cose incerte.</p>	<p>Amicus certus in re incerta cernitur. <u>Cic.</u> in Lael. (61a). / 14장 참고.</p>	<p>확실한 벗은 불 확실한 사건(불 행) 속에서 가 려진다. / Cicero.</p>
<p>교우론 27장</p> <p>爾爲吾之眞友, 이 위 오 지 진 우 則愛我以情, 즉 애 아 이 정 不愛我以物也. 불 애 아 이 물 아</p>	<p>네가 나의 眞正 진정 한 벗이 되려면, 곧 情理로 나를 정리 사랑 해야지, 物質 때문에 나 물질 를 사랑하지 않 아야 한다.</p>	<p>26. L'amico vero fa più s t i m a dell'affetto dell'amico che dei doni et cose di lui.</p>	<p>M e i p s u m oportet ames, non mea, si veri amici futuri sumus. <u>Cic.</u> 2. De finib. (61a).</p>	<p>우리가 진정한 벗이 되려면, 너 는 나의 所有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필요가 있다. / Cicero.</p>
<p>교우론 28장</p> <p>交友使獨知利己, 교우 사 독 지 리 기 不復顧益其友, 불 복 고 익 기 우 是商(商/D'ELIA 시 적 상 논문)賈之人耳, 고 지 인 이 不可謂友也. 불가 위 우 아 < 小人交友如放 소인 교우 여 방 帳, 장 惟計利幾何.> 유 계 리 기 하 (영인본 8a)</p>	<p>벗과 사귀면서 오직 자신의 이 익만 알고, 벗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본래 장사치 (賈人)일 뿐이지, 고인 벗이라고 이를 수 없다. < 소인은 벗 사 귀를 마치 帳簿 장부 를 내놓듯 하여, 오직 利潤이 얼 이윤 마인지만 계산한 다.></p>	<p>27. Chi nel far amicitia solo attende al suo proprio utile et' non a q u e l l o dell'amico, questo si deve c h i a m a r mercante, non amico. ===== <D'ELIA 논문/ L'uomo v o l g a r e c o n t r a e amicizia come se facesse i conti; egli non calcola che quanto ci guadagna.></p>	<p><=Si amicitiam ad usum referamus nostrum, non ad illius commodum, q u e m diligimus, non erit ista amicitia, sed mercatura qua edam utilitatum suarum. <u>Cicero</u> 2. de nat. Deo. (61a).</p>	<p>우정을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만 이용하고, 그 의 편익을 도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자기 이 윤을 위한 장사 치(賣買)일 뿐이 다. / Cicero.</p>
<p>교우론 29장</p>		<p>28. Tra</p>	<p>Amicorum res</p>	<p>D'ELIA 논문 p.</p>

<p>友之物皆與共. 우 지 물 개 여 공 (영인본 8a).</p>	<p>벗의 모든 것 (物)은 두루 다 나누어야 한다.</p>	<p>gl'amici tutte le cose sono comuni.</p>	<p>communes. <u>Arist.</u> Ethic.Nicom VIII, 9. + cf. Omnia cum amico delibera, sed de ipso prius. <u>Senec.</u> epist.3(p. 60).</p>	<p>481-각주 4참 조./ 벗들의 물 건은 공동이 다./<u>Aristoteles.</u> + 모든 것은 자 신이 미리 (정) 하지 말고, (모 두) 벗과 상의해 야 한다. / <u>Seneca.</u></p>
<p><u>교우론 30장</u> 交友之貴賤, 교우 지 귀천 在所交之意耳. 재 소 교 지 의 이 特據德相友者, 특 거 덕 상 우 자 今世得幾雙乎. 금세 득 기 쌍 호 (영인본 8a).</p>	<p>교우 관계의 貴賤은 사귀는 귀천 意志(意向)에 달 의지 의향 려있다. 특별히 서로 사 귀는 덕에 根據하는 벗들이 근거 오늘날 몇 쌍이 나 될까?</p>	<p>29. L'amicitia nobile o vile dipende dall'intentione con che si fa. Quanti trovarete oggi che faccio amicitia solo per amore della virtù?</p>	<p>Amicitia non sub dubia utilitatis ratione effici solet, sed ipsa ex se oritur, et sua sponte nascitur. <u>Cic.</u> 2. De finib. (61a).</p>	<p>우정이란 의심 없이 이득을 보 려는 이유에 (통 상적으로) 기인 하지 않고, 우정 자체로, 또 자발 적으로 생겨난 다. / <u>Cicero.</u></p>
<p><u>교우론 31장</u> 友之所宜相宥, 우 지 소 의 상 유 有限. 유한 < 友或負罪, 우 혹 부 죄 惟小可容. 유 소 가 용 友如犯義, 우 여 범 의 必大乃弃. > 필 대 내 기 (영인본 8a).</p>	<p>벗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限度가 있다. 한도 < 設或 벗이 죄 실족 를 지으면, 오직 작은 죄만은 容恕할 수 있다. 용서 (그러나) 벗이 正義를 侵犯하 정의 침범 면, (그 친구를) 완전히 拋棄해야 포기 한다. ></p>	<p>30. Quanto si debbasopportar l'amico, tiene il suo termine e misura. <Percioché per piccoli peccati non si deve lasciar l'amico, ma s'egli fusse affatto malo et dirittamente andasse contra la ragione, all'ora</p>	<p>Est quatenus amicitiae dari venia potest. <u>Gel.</u> lib. 1. (61a).</p>	<p>벗을 용서해줄 수 있는 데에도 한도가 있다. / <u>Gelatius ?.</u></p>

		totalmente bisognar rompere l'amicitia.>		
<p>교우론 32장</p> <p>友之樂多於義 우지락다어의</p> <p>不可久友也. 불가구우야</p> <p>(영인본 8b).</p>	<p>벗이 義보다 의</p> <p>快樂을 더 좋아 쾌락</p> <p>하면, 오랜 벗이 될 수 없다.</p>	<p>31. Quando l'amico tiene più di dolcezza e di piacere che di ragione, non si deve continuar molto tempo.</p>	<p>Concordia non potest (D'ELIA 논문/patitur) esse sine iustitia. Aug. lib. 2. De Civ. Dei cap. 21. (67b).</p>	<p>(우정의) 和습은 화합</p> <p>正義 없이 오래 정의</p> <p>가지 않는다.</p> <p>/ Augustinus.</p>
<p>교우론 33장</p> <p>忍友之惡, 인우지악</p> <p>便以他惡爲己惡 편이타악위기악</p> <p>焉. 언</p> <p>(영인본 8b).</p>	<p>벗의 잘못을 容忍하는 것은, 용인</p> <p>곧 그의 罪惡을 죄악</p> <p>자기의 죄악으로 만드는 것이다.</p>	<p>32. Chi sopporta e dissimula gli vitij dell'amico fa suoi proprij gli peccati altrui.</p>	<p>Amici vitia si feras, facis tua. Publ. Mim. (61b). <= 내견해 + cf. Amicus internus potest accusare de injuria illata amico suo: quia ipsius injuria dicitur. Cassiod. apud Jurisconsul.(p. 62b).</p>	<p>만일 네가 벗의 범죄를 容忍하 용인</p> <p>면, (그 죄악을) 네 것으로 만드 는 것이다./ Publius Mimus <= 내견해 + cf. 진실한 벗은 자 기 벗의 不義 불의</p> <p>를 지적할 수 있 으니, 바로 (나) 자신의 불의이기 때 문 이 다 /Cassiodorus.</p>
<p>교우론 34장</p> <p>我所能爲, 아소능위</p> <p>不必望友代爲之. 불필망우대위지</p> <p>(영인본 8b).</p>	<p>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벗이 代行 대행</p> <p>해 주기를 바라 서는 안 된다.</p>	<p>33. Quello che posso far per me stesso, non devo aspettar che lo faccio gl'amici.</p>	<p>Ne quid expectes amicos, quod tu agere possis. Ennius apud Gel. (61b).</p>	<p>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벗에게 (해주기를) 바라 지 마라.</p> <p>/ Ennius.</p>
<p>교우론 35장</p> <p>友者古之尊名, 우자고지존명</p> <p>今出之以售比之 금출지이수비지</p>	<p>벗이 예전에는 존경스런 이름이 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貨幣 화폐</p> <p>에 比喻되어 팔 비유</p>	<p>34. Al nome d'amico, tanto stimato et havuto in tanta</p>	<p>Illud amicitiae quondam venerabile nomen, Prostat, et in</p>	<p>예전에는 우정이 존경스런 이름이 였으나, (이제는) 돌출되어, 장사 치를 위한 이득</p>

<p>於貨, 어 화 惜哉. 석 재 (영인본 8b).</p>	<p>리는 것으로 나타나니, (참으로) 안타깝도다.</p>	<p>veneratione appresso gl'antichi, é gia posto il prezzo e si vende: et é certo cosa da dolersi che sia comparata a cose vili.</p>	<p>quaestu pro meretrice sedet. <u>Ovid.</u> 2. de Pont. (61b)</p>	<p>으로 놀러 앉았다. <u>/ Ovidius.</u></p>
<p><u>교우론 36장</u> 友於昆倫邇, 우 어 곤 룬 이 故友相呼謂兄, 고 우 상호 위 형 而善於兄弟爲友. 이 선 어 형제 위 우 (영인본 8b).</p>	<p>벗은 형제(昆弟) 무리와 가까운 (같은) 것이어서, 그러므로 벗들은 서로 형이라 부르고, 또한 벗들이 형제들보다 사이가 더 좋다 (親善)고 한다. <small>친선</small></p>	<p>35. La relatione dell'amico con l'amico é molto vicina a quella ch'è tra fratelli. Però gl'amici tra di loro si chiamano fratelli e quando sono buoni fratelli si dicono esser veri amici.</p>	<p>F r a t r e s h o m i n e s omnes inter sese. <u>Aug.</u> lib. 2. Contra A c a d . (251b/Affinitas 목록).</p>	<p>모든 사람들은 서로서로 형제들이다. <u>/ Augustinus.</u></p>
<p><u>교우론 37장</u> 友之益世也, 우 지 익 세 야 大乎財焉. 대 호 재 언 無人愛財爲財, 무 인 애 재 위 재 而有愛友特爲友 이 유 애 우 특 위 우 耳. 이 (영인본 8b).</p>	<p>友情은 세상에서 재물보다 더 유익하다. (그러므로) 재물을 위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지만, 특별히 벗을 위해 벗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p>	<p>36. L'amicitia é più utile al mondo che la r o b b a : perciöché non s'ama la robba per amor della robba, ma si vi é chi ama l'amico solo per amor dell'amico.</p>	<p>A m i c i t i a melior est divitiis, et nullus onoratur propter se, sed propter a l i u d : a m i c i t i a m autem sic. <u>Aristo.</u> Top.8. (54b).</p>	<p>재물보다 우정이 더 소중하니, 어느 누구도 재물 자체를 존중하지는 않으나, 이와는 달리 우정은 (우정 자체를) 존중한다. <u>/ Aristoteles.</u></p>
<p><u>교우론 38장</u></p>	<p>오늘날 벗들은 이미 (말을) 숨</p>	<p>* 리치의 이태리어 원문이 없</p>	<p>Quoniam hisce temporibus ad</p>	<p>오늘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우</p>

<p>今也友既沒言, 금야우기몰언 而諛諛者爲佞. 이답유자위녕</p> <p>則惟存仇人以我 즉유존구인이아 聞眞語矣. 문진어의 (영인본 8b).</p>	<p>기고, 말하느니 수다스러운 아침 꾼들만 재주를 부리고 있다.</p> <p>그런즉 내가 듣 는 眞言은 오직 진언 적들에게서 뿐이 다.</p>	<p>어, 엘리야의 변 역본을 제시./ Poiché oggi gli amici non parlano e che gli adulatori sono eloquenti, non mi restano che i nemici dai quali io possa sentire delle parole di verità.</p>	<p>libere loquendum pene vocem amisit amicitia, loquax est autem assentatio, admonitio muta, superest, ut abinimicis verum audiamus. <u>Xenoph.</u> apud Plut. de utilit. cap. inim.(63a)</p>	<p>정은 거의 사라 져버리고, 수다 스런 아침과 병 어리 권고만 남 았기에, 우리가 眞實을 듣는 곳 진실 은 적들에게서 뿐이다. / <u>Xenophon.</u></p>
<p><u>교우론 39장</u></p> <p>設令我或被害於 설령아혹피해어 友, 우 非但恨己害, 비단한기해 乃滋恨其害自友 내자한기해자우 發矣. 발의 (영인본 9a).</p>	<p>設令 내가 혹 설령 벗에게서 損害를 손해 입었다면, 非但 비단 자기가 당한 被害를 恨歎할 피해 한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벗으로써 (發生)왔다는 발생 것을 더욱 한탄 하게 된다.</p>	<p>37. S'avviene ch'alcun'amic o mi facci alcun male, non solo mi duole del male, ma molto più sento l'esser mi quello stato fatto dall'amico.</p>	<p>Nullus tantum contristatur, et laeditur propter malum illatum abinimicis, quantum tristatur malo illato ab amicis. <u>Arist.</u> de Poet. 2. (55a).</p>	<p>누구든지 적들로 부터 입은 害惡 해악 에 슬퍼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지만, 오히려 벗들로부터 입은 손해는 더욱 슬 퍼한다. / <u>Aristoteles.</u></p>
<p><u>교우론 40장</u></p> <p>多有密友, 다유밀우 便無密友也. 편무밀우야 (영인본 9a).</p>	<p>친밀한 벗이 많 이 있다면, 곧 아무도 친밀한 벗이 아니다.</p>	<p>38. Chi tiene molti amici intrinsechi, no' tiene nissuno amico intrinseco.</p>	<p>Amici multi, amicus nemo. <u>Arist.</u> apud Diog. lib. 5. (p. 55b).</p>	<p>벗이 많다면, 그 누구도 (참된) 벗이 아니다. / <u>Aristoteles.</u></p>
<p><u>교우론 41장</u></p> <p>如我恒幸無禍, 여아항행무화 豈識友之眞否哉. 개식우지진부재 (영인본 9a).</p>	<p>만약 내게 항상 행복만 있고 殃禍는 없다면, 양화 어찌 벗의 眞否 진부</p>	<p>39. S'alcuno fusse sempre in prosperità senza calamità,</p>	<p>Si vitae praestes omniasecunda, amicus otiosa</p>	<p>만약 네 생활의 모든 것이 잘 되 기만 한다면, 벗 은 무의미한 존 재가 된다.</p>

	<p>(眞偽與否) 를 <small>진위 여부</small> 識別할 수 있겠 <small>식별</small> 는가?</p>	<p>come saprà se gl'amici siano veri o no?</p>	<p>res est. <u>Quint.</u> Declam. 16. (61b).</p>	<p>/ <u>Quintilianus.</u></p>
<p><u>교우론 42장</u> 友之道甚廣闊 <small>우 지 도 심 광활</small> (濶), <small>활</small> 雖至下品之人, <small>수 지 하품 지 인</small> 以盜爲事, <small>이 도 위 사</small> 亦必似結友爲黨, <small>역 필 사 결 우 위 당</small> 方能行其事焉. <small>방 능 행 기 사 언</small> (영인본 9a).</p>	<p>우정의 길은 아 주 廣闊하여, 비 <small>광활</small> 록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 (우정은) 있 다. 强盜짓을 하는데 <small>강도</small> 도, 역시 반드시 徒黨을 結成하 <small>도당 결성</small> 여 벗이 됨으로 써, 모두 그 일 을 능히 遂行할 <small>수행</small> 수 있게 된다.</p>	<p>40. L'amicitia ha li suoi termini molto larghi, et abbraccia ogni sorte di gente per vile che sia: l'istessi ladri fanno prima fra di loro una, certa s o r t e d'amicitia, et poi si mettono ad esercitare l'offitio loro.</p>	<p>Serpit nescio quomodo per omnem vitam amicitia, nec ullam aetatis d e g e n d a e r a t i o n e m patitur esse expertem sui: ut vel ii, qui se totos tradiderunt voluptati, sine amicitia vitam esse nullam sentiant, si modo velint aliqua ex p a r t e liberaliter vivere. <u>Cic.</u> in Laelio.(60ab).</p>	<p>모든 삶에 우정 이 어떻게 번져 가는지, 또한 자 신도 모르게 어 느 시기에 (우정 에) 탐닉하게 되 는지 나는 모른 다.; 쾌락에 온통 빠 쳐드는 사람들도 우정이 없이는 삶 자체를 느끼 지 못하므로, 이 렇게 한편으로 는 자유롭게 살 려고, 이런 방법 (우정)을 원한다. / <u>Cicero.</u></p>
<p><u>교우론 43장</u> 視友如己者, <small>시 우 여 기 자</small> 則澁者濶, <small>즉 가 자 이</small> 弱者强, <small>약자 강</small> 患者幸, <small>환자 행</small> 病者愈. <small>병자 유</small> 何必多言也, <small>하필 다언 야</small> 死者猶生也. <small>사자 유 생 야</small> (영인본 9a).</p>	<p>벗을 자기처럼 보게 되면, 곧 멀었던 사람도 가까이 오게 되 고, 약자도 강하 게 하고, 憂患이 <small>우환</small> 있는 사람도 행 복하게 하고, 병 자도 낫게 한다. 어찌 많은 말이 필요하라. 죽은 사람조차도 (벗 안에서) 살아남</p>	<p>41. Quando si trattano gl'amici come se stessi, allora quel ch'è lontano si fa vicino, forte diventa il debole, felice il misero, l'infermo sano, et per finirla, il morto ancora</p>	<p>Qui amicum intuetur, tanquam exemplar aliquod intuetur sui: quocirca et absentes adsunt, et egentes abundant, et imbecilles valent, et, quod dictu difficilius,</p>	<p>벗을 자신의 모 형으로 바라보게 되면: 멀었던 사 람을 (가까이)오 게 하고, 빈자를 풍족하게 하고, 허약자를 강하게 한다. 더욱 말하기 어 려운 것은 죽은 이를 살게 한다 는 것이다. / <u>Cicero.</u></p>

	게 된다.	nell'amico resta vivo.	mortui vivunt. <u>Cicer.</u> in Laelio. (60a).	
<p>교우론 44장</p> <p>我有二友相訟於 아 유 이 우 상송 어 前, 我不欲爲之聽判, 아 불 욱 위 지 청 판 恐一以我爲仇也. 공 일 이 아 위 구 야</p> <p>我有二仇相訟於 아 유 이 구 상송 어 前, 我猶可爲之聽判, 아 유 가 위 지 청 판 必一以我爲友也. 필 일 이 아 위 우 야 (영인본 9ab).</p>	<p>나에게 두 명의 벗이 있어 앞에 서 서로 訟事 송사 (相訟)를 벌이면, 나는 듣고 判斷 판단 해 주지 않으려 다. 그 중에 하 나는 나를 원수 로 여길까 두렵 기 때문이다.</p> <p>나에게 두 명의 원수가 있어 앞 에서 서로 송사 를 벌이면, 나는 오히려 듣고 判斷해 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를 벗으로 여 길 것이기 때문 이다.</p>	<p>42. Quando doi miei amici vengono a me con qualche differenza, non mi curo d'entrar fra loro come giudice: percioché temo ch'uno di loro mi diventi inimico.</p> <p>Ma se doi inimici mi vengono inanti con lite, ben posso farmi lor giudice: perche almeno un di loro mi restarà amico.</p>	<p>cf. D'ELIA 논문 p. 486-2/ [Bias] malle se inter inimicos quam inter amicos iudicare dicebat: quippe ex amicis alterum prorsus futurum inimicum, ex inimicis autem alterum amicum.</p> <p><u>Diogene</u> Laerzio, Vitae philosophorum , I, p. 22)</p>	<p>비아스[Bias =희 랍 7현 중의 하 나]는 벗들보다는 원수 들 사이를 심판 해 주었다.:</p> <p>왜냐하면 벗들 사이에서는 틀림 없이 앞으로 원 수가 나오지만, 반대로 원수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벗이 나오 기 때문이다.</p> <p><u>/Diogene</u> <u>Laerzio.</u></p>
<p>교우론 45장</p> <p>信于仇者猶不可 신 우 구 자 유 불가 失, 況于友者哉. 황 우 우 자 재 信于友不足言矣. 신 우 우 부족 언 의 (영인본 9b).</p>	<p>信用은 원수에게 신용 도 없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벗에게는 어떠하랴 !</p> <p>(그러므로) 벗에 대한 信賴는 말 신뢰 이 부족하다.</p>	<p>43. La promessa e fede si deve anco osservar all'inimico: La onde non é gran' cosa esser fedele all'amico.</p>	<p>Fides etiam perfidis praestanda. <u>Amb.</u> lib.2. de Offic. (53b).</p> <p>+ 내견해/ Amici, fide parantur. <u>Sallust.</u> de coniur. Catil.(p. 61b).</p>	<p>배신자들에게도 신뢰를 두어야 한다.</p> <p><u>/Ambrosius.</u></p> <p>+ 내견해/ 벗들이란 (곧) 신뢰(믿음)와 같 다. <u>/Sallustius.</u></p>
<p>교우론 46장</p> <p>友之職, 우 지 직</p>	<p>벗의 職分(직무 직분 와 책임)은 義에 의</p>	<p>44. L'offitio e debito dell'amico non</p>	<p>Amicis usque ad aras utendum est.</p>	<p>벗들은 (희생)제 단에 이르기까지 (= 죽기까지)</p>

<p>至於義而止焉。 지 어 의 이 지 언. (영인본 9b). cf.大學, '大學之道 대학 대학 지도 --在止於至善' 재 지 어 지선</p>	<p>이르러 머무는 (止) 것이다. (벗 = 義란 뜻). 의</p>	<p>trapassa i termini della ragione.</p>	<p>Diogen. apud Plut. de vit. verec. (55b).</p>	<p>善^{신용}用해야 한다. /Diogenes Laertius.</p>
<p>교우론 47장 如友寡也, 여 우 과 약 予寡有喜, 여 과 유 희 亦寡有憂焉. 역 과 유 우 언</p>	<p>만일 (나의) 벗 이 적으면, 나의 기쁨도 적겠지 만, 마찬가지로 근심도 적게 될 것이다.</p>	<p>45. S'io havrò pochi amici, havrò certo p o c a allegrezza, ma i n s i e m e ancora poca tristezza.</p>	<p>Si vitare velis a c e r b a quaedam, et tristes animi c a v e r e morsus, nulli te facias nimis s o d a l e m , g a u d e b i s minus, et minus dolebis. Mart. lib. 12. (61b).</p>	<p>혹독한 고통과 정신의 쓰라린 걱정을 피하려 면, 네가 지나치 게 (많은) 벗을 사귀지 말아야, 적게 기뻐하고 적게 고통을 받 을 것이다. /Martialis.</p>
<p>교우론 48장 故友爲美, 고 우 위 미 友不可棄之也. 우 불가 기 지 야 無故以新易舊, 무고 이 신 역 구 不久卽悔. 불구 즉 회 (영인본 9b).</p>	<p>오래된 벗이 (더) 좋으니, (그) 벗을 버려 서는 안 된다. 까닭 없이 옛 벗 을 새 벗으로 바 꾸면,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된 다.</p>	<p>46. L'amico vecchio é m i g l i o r e dell'amico nuovo, onde non é bene lasciarlo: e chi senza causa muta l ' a m i c o vecchio per il nuovo, non é dubio che presto si pentirà.</p>	<p>Amici novi veteribus non s u n t anteponendi. Cic. in Lael. (61a).</p>	<p>새 벗을 옛 벗보 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Cicero.</p>
<p>교우론 49장 既友, 기 우 每事可同議定, 매사 가 동 의정 然先須議定友. 연 선 수 의정 우 (영인본 9b).</p>	<p>(누구와) 이미 벗이 되었다면, 매사를 (그와) 함께 의논하여 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벗을 選定하는 선정</p>	<p>47. Dopo che havrò fatta amicitia con alcuno, ogni mia faccenda ho da communicare e consultar</p>	<p><= Omnia cum a m i c o delibera, sed de ipso prius. Senec. Epist. 3.(p. 60a).</p>	<p>모든 일은 벗과 의논해야 한다. 그러나 벗 (선택 이) 우선이다./ Seneca. (* 이 문장은 교 우론 7장의 전 반부이다. 그러</p>

	<p>것이 우선이다.</p>	<p>conlui; ma prima d'ogni altra cosa consulterò degl'amici, ai quali mi debba appigliare.</p>		<p>므로 리치 신부는 세네카의 이 글을(p. 60a) 교우론 49장과 7장에서 나누어 인용하고 있다.)</p>
<p>교우론 50장</p> <p>友於親惟此長焉, 우 어 친 유 차 장 언 親能無相愛親友 친 능 무 상 애 친 우 者否. 자 부</p> <p>蓋親無愛親, 개 친 무 애 친 親倫猶在. 친 윤 유 재</p> <p>除愛乎友, 제 애 호 우 其友理焉存乎? 기 우 리 언 존 호 (영인본 9b).</p>	<p>벗은 親戚보다 <small>친척</small> 더 나으니, 친척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밀한 벗은 그렇지 않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p> <p>친척이 친척을 사랑하지 않아도, 친척의 倫理 <small>윤리</small> 는 존재한다. (그러나) 우정에서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그 우정의 道理가 어디에 남아(殘存) <small>잔존</small> 있겠는가?</p>	<p>48. In questo l'amicitia é migliore che la parentela, che il parente può non amar il parente, restando fra loro il vincolo d e l l a parentela: ma l'amico non può non amar l' amico : perciò se dall'amicitia togliete via l'amore, si toglie l'istessa e s s e n z a dell'amicitia.</p>	<p>Hoc praestat a m i c i t i a propinquitati, quod ex propinquitate benevolentia tolli potest, ex amicitia non potest.</p> <p>Sublata enim benevolentia, a m i c i t i a e n o m e n t o l l i t u r , propinquitatis m a n e t .</p> <p>Cicierone, Lael, /cf. D'ELIA본 p.489의 각주 1.</p>	<p>우정은 친척보다 나으니, 친척에게서는 호의(사랑)를 제거할 수 있으나, 우정에서 호의(사랑)를 제거할 수는 없다.</p> <p>그러므로 호의(사랑)를 제거하면 우정의 이름도 사라지지만, (호의/사랑을 제거해도) 친척이란 이름은 남는다.</p>
<p>교우론 51장</p> <p>獨有友之業能起. 독 유 우 지 업 능 기 (영인본 10a).</p>	<p>벗이 있어야만 基業이 흥할 수 있다. <small>기업</small></p>	<p>49. Solo i negotij di chi tiene amici p o s s o n o tirarsi inanzi co' speranza di prosperi successi.</p>	<p><= Ubi amici, ibi opes. Q u i n t . lib.5(60a).</p>	<p>벗이 있는 곳에 곧 풍요(성공)가 있다. / Quintilianus.</p>
<p>교우론 52장</p> <p>友友之友, 우 우 지 우</p>	<p>벗의 친구와는 벗이 되고, 벗의 원수와는 원수가 되면, 우정이 두</p>	<p>50. E' segno di fedele amicitia esser anco amico</p>	<p>* 관련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도 찾을 수 없다.</p>	<p>* 리치의 이태리어 원문 번역 / 벗의 친구와는</p>

<p>仇友之仇, 구우지구 爲厚友也. 위후우야</p> <p>< 吾友必仁, 오우필인 則知愛人, 즉지애인 知惡人. 지오인 故我據之. > 고아거지 (영인본 10a).</p>	<p>터워지게 된다.</p> <p>< (이런) 나의 벗은 확실히 仁厚하여, 곧 사랑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벗에게) 依存(依據)한다. ></p>	<p>degli'amici del mio amico e i n i m i c o degli'inimici dell'amico.</p> <p>-< Et essendo, come esser deve, il mio a m i c o virtuoso, saprà amar i virtuosi, et aborrire i cattivi; onde sicuramente me ne vo dietro a lui. ></p>		<p>벗이 되고, 벗의 원수와는 원수가 되는 것이 충실한 우정의 표지이다.</p> <p><나의 어진 벗은 확실히, 德人을 사랑할 줄 알고, 惡人을 버릴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한다. ></p>
<p>교우론 53장</p> <p>不扶友之急, 불부우지급 則臨急無助者. 즉임급무조자 (영인본 10a).</p>	<p>벗이 급할 때 돕지 않으면, (자기가) 급할 때를 당해서도 돕는 자가 없다.</p>	<p>51. Chi non aiuta gl'amici mentre stanno in necessità, essendo egli in bisogno non avrà chi l'aiute.</p>	<p>Qui sociis periclitantibus non succurrit, facillime deseritur. Demosthen. Olynth. (64a).</p>	<p>위급한 동료를 돕지 않는 자는 쉬이 버림을 받는다. /Demosthenes. (* D'ELIA본 p. 490-각주1에서, Olynthica의 자료를 못 찾다.).</p>
<p>교우론 54장</p> <p>俗友者, 속우자 同而樂多於悅, 동이락다어열 別而留憂. 별이류우 義友者, 의우자 聚而悅多於樂, 취이열다어락 散而無愧. 산이무괴 (영인본 10a).</p>	<p>俗된 벗들이 同席하면 快樂이 (내면의) 喜悅보다 더 많고, 헤어지면 근심이 남는다.</p> <p>(그러나) 의로운 벗들이 모이면 快樂보다 喜悅이 많아서, 흩어지더라도 부끄러</p>	<p>52. Gl'amici trivali che non hanno mira ad altro ch'al diletto, quando sono insieme, l'allegrezza exterior é maggiore dell'interiore, e t, separandosi l'uno dall'altro restano con</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도(p. 490-각주2) 찾지 못하였다.</p>	

	<p>음(愧慙, 後悔)이 <small>괴참 후회</small> 없다.</p>	<p>tristezza: ma quando gl'amici virtuosi si trovano insieme, l'allegrezza interna é maggiore dell'esterna, et partendosi non hanno di che pentirsi.</p>		
<p>교우론 55장 我能防備他人, <small>아 능 방비 타인</small> 友者安防之乎? <small>우 자 안 방 지 호</small> 聊疑友, <small>료 의 우</small> 即大犯友之道矣. <small>즉 대범 우 지 도 의</small> (영인본 10a).</p>	<p>내가 타인으로부터는 (나를 잘) 방비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벗으로부터도 (나를) 안전하게 방비할 수 있겠는가? (범죄가) 의심되는 벗에게 의지하는 것(聊賴)은, 곧 우정의 도리를 크게 위반하는 것이다.</p>	<p>53. Io mi guardarò bene dagl'altri, ma dall'amico come posso guardarmi? In qualsivoglia cosa benché piccola io sospetti male dell'amico, faccio torto alle leggi della vera amicitia.</p>	<p>Tecti ad alios esse possumus, socium vero cavere, qui possumus? quem etiam si metuimus, ius officii violamus. Cic. pro Roscio. (64b)./societas et conversatio 목록에 있다.</p>	<p>우리는 타인들로부터는 (보호)안전할 수는 있으나, 실로 동료로부터도 (안전)조심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이를(동료의 범죄를 보호하려고) 겁내면, 직무상법을 어기는 것이다./ Cicero.</p>
<p>교우론 56장 上帝給人雙目雙 <small>상제 급 인 쌍 목 쌍</small> 耳, <small>이</small> 雙手雙足, <small>쌍수 쌍족</small> 欲兩友相助, <small>욕 양 우 상호</small> 方爲事有成矣. <small>방 위 사 유 성 의</small> < 友字古篆作 <small>우 자 고전 작</small></p>	<p>上帝(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두 눈과 두 귀, 한 쌍의 손과 한 쌍의 발을 주셨는데, 둘이 서로 돕는 (同僚)벗이 되어서, 바로 그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成)기</p>	<p>54. Iddio diede agl'huomini due occhi, due orecchie, due mani e due piedi per darci ad intendere ch'aiutandosi doi compagni insieme si può</p>	<p>Ipsi quoque homines duplices manus, socius aures, oculos geminos Deus tribuit, ut robustius perageretur officium, quod, duorum</p>	<p>사람의 몸에 두 손과, 양 귀, 쌍둥이 눈을 하느님께서 주셨으니, 더욱 힘 있</p>

<p> 友, 卽兩手也. <small>즉 양수 야</small> 可有而不可無. <small>가 유 이 불가 무</small> 朋字古篆作羽, <small>봉 자 고전 작 우</small> 卽兩(羽)也. <small>즉 양 우 야</small> 鳥備之, <small>조 비 지</small> 方能飛. <small>방 능 비</small> 古賢者 視(門友 <small>고 현자 시 문 우</small> /엘리아본)朋友, <small>봉우</small> 豈不如是耶? > <small>개 불 여 시 야</small> (영인본 10ab). </p>	<p> 를 바라신 것이 다. < 벗 友字는 옛 <small>우 자</small> 篆書에서 友(友) <small>전서</small> 로 기록하였으 니, 즉 두 손이 다. (양손이) 있 으면 (일이) 되 고, 없으면 불가 한 것이다. 벗 朋字는 옛 <small>봉 자</small> 篆書에서 날개 <small>전서</small> (羽)로 썼으니, <small>우</small> 즉 두 날개이다. 새가 (두 날개 를) 具備하여야 <small>구비</small> 날을 수 있는 것 이다. 옛 賢者가 朋友 <small>현자 봉우</small> 를 보며, 어찌 이와 같이 여기 지 않았겠는가? > </p>	<p> dar buon fine ai negotij. < Et questo istesso volsero significare gl'antichi Cinesi, li quali espressero l'amico con carattere che significa due mani 友, senza le quali difficilmente si può vivere: e volendo significar il compagno, lo scrissero con carattere 羽, senza le quali l'uccelo non può alzarsi a volo. > </p>	<p> fuerat societate complendum. <u>Cassiod.</u> 3 Epist. (65a). </p>	<p> 게 일을 완수하 기 위한 것으로 서, 둘이 협력하 여 완수하여야 한다는 (의미)것 이다. *D'ELIA 논문 p. 491의 각주 2 에 서 , 이 글은 <u>Cassiodoro</u>의 글이 아니라, <u>Plutarco</u>, De fraterno amore II (p. 580)에 있다고 한다. </p>
<p> <u>교우론 57장</u> 天下無友, <small>천하 무 우</small> 則無樂焉. <small>즉 무 락 언</small> (영인본 10b). </p>	<p> 天下에 友情이 <small>천하 우정</small> 없었다면, 곧 喜樂도 없다. <small>희락</small> </p>	<p> 55. Se nel mondo non vi fusse amicitia, non vi sarebbe allegrezza. </p>	<p> Nullus eligeret vivere sine amicis, habens omnia bona. <u>Arist.</u> Eth. 8. (54a-55a). </p>	<p> 모든 보화는 소 유하면서도, 벗 들이 없이 살려 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 /<u>Aristoteles</u>. <u>cf.교우론 37장</u>. </p>
<p> <u>교우론 58장</u> 以詐待友, <small>이 사 대 우</small> 初若可以籠人, <small>초 약 가 이 롱 인</small> 久而詐露, <small>구 이 사 로</small> 反爲友厭薄矣. <small>반 위 우 염 박 의</small> </p>	<p> 거짓(詐欺)으로 <small>사기</small> 벗을 대하면, 始初에는 사람을 <small>시초</small> 籠絡할 수 있지 <small>농락</small> 만, 오래되면 거 짓이 드러나고, </p>	<p> 56. Chi tratta con gl'amici con fintione, seben al principio par che fa dell'amico, tuttavia alla </p>	<p> *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 에 서도(p. 492-각 주2) 찾지 못하 였다. </p>	

<p>以誠待友, 이 성 대 우 初惟自盡其心, 초 유 자진 기 심 久而誠孚, 구 이 성 부 益爲友敬服矣. 익 위 우 경복 의 (영인본 10b).</p>	<p>(이에) 反하여 받 벗으로 하여금 厭症을 내고 싫 엄중 어(薄待)하게 만 박대 든다. (그러나) 誠心으 성심 로 벗을 대하면, 始初부터 온갖 시초 정성을 다하는 그 심장이 모여, 오래되면 그 정 성이 드러나서 (孵化), 벗으로 부화 하여금 敬歎하고 경탄 感服하게 한다. 감복</p>	<p>fine si scuopre la fintione, et lo tengono poi gl'amici in poco conto e stima. Ma chi tratta con essi con verità et in questo mette dal principio tutta la sua diligenza et industria, depoi la verità viene ad esser creduta e t e n u t a dagl'amici in m o l t a riverenza e stima.</p>		
<p>교우론 59장 我先貧賤而後 아 선 빈천 이 후 富貴, 부귀 則舊交不可棄. 즉 구교 불가 기 而新者或以勢利 이 신 자 혹 이 세리 相依. 상의</p>	<p>내가 전에는 貧賤하였다가 후 빈천 에 富貴하게 되 부귀 었다면, 예전의 벗을 버려서는 안 된다. 새로운 벗은 혹 시 (나의)勢力과 세력 權利(便利) 때문 권리 편리 에 서로 (가까 이) 依支할 수 의지 있기 때문이다.</p>	<p>57.Se di basso e povero stato vengo inalzato a più alto g r a d o d'honori e ricchezze, non devo per q u e s t o a b a n d o n a r g l ' a m i c i vecchi, perche forsi li nuovi dall'odore dell'utile e c o m m o d i p r o p r i j saranno tirati</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 도(p. 492-각주3) 찾지 못하였다.</p>	

<p>我先富貴而後 아 선 부귀 이 후 貧賤, 빈천 則舊交不可恃. 즉 구교 불가 시</p> <p>而新者或以道義 이 신 자 혹 이 도의 相合. 상합</p> <p>友先貧賤而後 우 선 빈천 이 후 富貴, 부귀 我當察其情. 아 당 찰 기 정</p> <p>恐我欲新友, 공 아 욕 신 우 而友或踈我也. 이 우 혹 소 아 야</p> <p>友先富貴而後 우 선 부귀 이 후 貧賤, 빈천</p>	<p>(그러나) 내가 전에는 富貴하였 부귀 다가 후에 貧賤 빈천 하게 되었다면, 오래된 벗을 믿 어서는 안 된다.</p> <p>혹 새로운 벗과 는 道義 때문에 도의 서로 (뜻이) 맞 을 수 있다.</p> <p>벗이 전에는 貧賤하였다가 후 빈천 에 富貴하게 되 부귀 었다면, 나는 宜當히 그 心情 의당 심정 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새 벗에게 욕심을 내게 될 까, 또 벗이 혹 시라도 나를 떠 날까 두렵기 때 문이다.</p> <p>(그러나) 벗이 전에는 富貴하였 부귀</p>	<p>alla mia amicitia. Ma se quando di honorato e ricco divengo basso e povero, alcuni nuovi amici m e s'accostano, sarà buon mossi dalla ragione e verità, et di tali devo più confidarmi che degl'amici vecchi. Quando l'amico di povero e basso diventa ricco et honorato, mi conviene molto bene essaminar l'animo suo, acciò non avvenga che, mentre io procuro di farmele intrinseco, egli all'incontro mi ributti e mi tenga da sé lontano. Ma se d'honorato e</p>		
---	--	--	--	--

<p>我當加其敬. 아 당 가 기 경</p> <p>恐友防我踈, 공 우 방 아 소</p> <p>而我遂自處於踈 이 아 수 자처 우 소</p> <p>也. 야</p> <p>(영인본 10b/11a).</p>	<p>다가 후에 貧賤^{빈천} 하게 되었다면, 나는 의당히 그 敬愼(= 조 심 / * 경신 論語/^{논어} 敬愼, 경신 執事敬)을 더해 야 한다.</p> <p>(왜냐하면) 벗은 나의 疏散(멀어 소산 짐)을 방지하려 고 하고, 또 나 는 떠나려고 自處할까 두렵기 자처 때문이다.</p>	<p>ricco divenne basso e p o v e r o , conviene ch'io u s i grand'industri a in fargli h o n o r e ; perciocché temo ch'egli hora non s'assicuri d'accostarmisi , onde tanto più devo dargli amico c o n accostarme a lui.</p>		
<p>교우론 60장 夫時何時乎? 부 시 하 시 호</p> <p>順語生友, 순 어 생 우</p> <p>直言生怨. 직언 생 원</p> <p>(영인본 11a).</p>	<p>대저 지금이 어 느 때인가? 順語(듣기 좋은 순 어 아침)가 벗을 만 들고,直言 직언 (苦言)은 怨恨을 고언 원한 놓고 있다.</p>	<p>*리치의 이태리 어 원문은 없다.</p>	<p>Obsequium amicos, veritas odium parit. Terenzio, Com. Andria 68.</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 (p. 494-각주 1), 원천과 다른 자료를 찾아냈다. 阿附는 벗 아부 들을, 眞言은 진언 憎惡를 놓고 있 증오 다. /Terentius.</p>
<p>교우론 61장</p> <p>視其人之友如林, 시 기 인 지 우 여 름</p> <p>則知其德之盛. 즉 지 기 덕 지 성</p> <p>視其人之友落落 시 기 인 지 우 락 락</p> <p>如晨星, 여 신성</p> <p>則知其德之薄. 즉 지 기 덕 지 박</p>	<p>그 사람의 벗들 이 수풀과 같이 (많은) 것을 보 면, 곧 그 덕이 隆盛한 것을 알 용성 수 있다.</p> <p>(그러나) 그 사 람의 벗들이 새</p>	<p>58. Quando veggo che gl'amici d'alcuno fioriscono come un bel campo, allora intendo che la sua virtù é grande. Ma e</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 도(p. 494-각 주2) 찾지 못하 였다.</p>	

<p>(영인본 11a).</p>	<p>벽별들처럼(등성 등성) 떨어지는 것을 보면, 곧 그 덕이 적다 (稀薄)는 것을 <small>희박</small> 알 수 있다.</p>	<p>veggo che quelli cadono come stelle di notte, allora so che la sua virtu' é poca.</p>		
<p>교우론 62장</p> <p>君子之交友難, <small>군자 지 교우 난</small> 小人之交友易. <small>소인 지 교우 이</small></p> <p>難合者難散, <small>난 합 자 난 산</small> 易合者易散也. <small>이 합 자 이 산 야</small></p> <p>(영인본 11a).</p>	<p>君子와 벗으로 <small>군자</small> 사귀기는 어렵고, 小人과 벗으로 <small>소인</small> 사귀기는 쉽다.</p> <p>어렵게 모이면 어렵게 헤어지지 만, 쉽게 모이면 쉽게 헤어지게 된다.</p>	<p>59Far amicitia con huomini da bene e virtuosi é difficile, e farla con huomini cattivi é facile. Ma sappia che quello che difficilmente si congiunge, difficilmente anco si stacca, come all'incontro facilmente si destacca quello che con facilità si congiunse.</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도(p. 494-각주3) 찾지 못하였다.</p>	
<p>교우론 63장</p> <p>平時交好, <small>평시 교 호</small> 一旦臨小利害, <small>일 단 입 소 이해</small> 遂爲仇敵, <small>수 위 구적</small> 由其交之未出於正也. <small>유 기 교 지 미 출 어 정 야</small></p> <p>交既正, <small>교 기 정</small></p>	<p>平常時에는 <small>평상시</small> 사귀이 좋다가, 한 순간에 사소한 이해관계에 <small>임</small> 임하여,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것은, 그 사귀의 <small>유래</small> 由來가 바른데서 <small>출발</small> 出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60. Quei che lungo tempo fur(o)no amici, et in un punto per piccolo interesse diventano inimici, chiaramente danno ad intendere che</p>	<p>cf./ Cum pro re terrena pax a corde cum proximo scinditur, liquide apparet, quod res plus quam proximus</p>	<p>세상의 재물(이익)을 위해서는 마음으로 평화로운데(화합하고), 이웃과는 분열(불화)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이웃보다 재물을</p>

<p>則利可分害可共 즉 리 가분 해 가 공 矣. 의 (영인본 11a).</p>	<p>사립이 이미 바 르면, 곧 利益은 이익 나눌 수 있고, 손해는 共有할 공유 수 있는 것이다.</p>	<p>la loro amicitia non e r a dirittamente f a t t a ; perciocché gli veri amici sanno molto b e n e compartire fra loro il guadagno e patire insieme il danno.</p>	<p>amatur. <u>Greg.</u> in Hom.</p>	<p>더 사랑하기 때 문이다. <u>/그레고리오.</u> *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 도(p. 495-각 주1) 찾지 못하 였으나, 적지 않 은 그레고리오 성인들의 글 가 운데서, 옆 란의 문장을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p>
<p><u>교우론 64장</u> 我榮時請而方來, 아 영 시 청 이 방 래 患時不請而自來, 환 시 불 청 이 자 래 夫友哉. 부 우 재 (영인본 11a).</p>	<p>내가 榮華로울 영화 때 불러야만 오 고, 내가 憂患 우환 중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오는, 그가 바로 벗이다.</p>	<p>64장에 대한 D'ELIA 논문의 번역문/ Colui che in tempi di gloria per me, se io l'invito allora viene, e in tempi di disgrazia viene da sé senza essere invitato, é un [vero] amico.</p>	<p><= Amici secundis in rebus advocati adsint: in calamitatibus autem sua sponte, atque i n v o c a t i . <u>Demosth.</u> ibid. (55b).</p>	<p>벗들이란 (내가) 잘 나갈 때 불러 야 오지만, 患難 환난 중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온 다. <u>/Demosthenes.</u> (cf.교우론 5장).</p>
<p><u>교우론 65장</u> 世間之物, 세간 지 물 多各而無用, 다 각 이 무용 同而始有益也. 동 이 시 유익 야 人豈獨不如此 인 개 독 불 여 차 耶? 야 (영인본 11b).</p>	<p>世間의 물건들 세간 은, 모두 各各으 각각 로는 아무 所用 소용 이 없으나, 함께 하면 비로소 有益해진다. 유익 사람만이 惟獨 유독 이와 같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61. Le cose di questo mondo, ciascuna per se niente o poco servono, ma insieme con l'altre sono molto utili. Et solo l'huomo sarà differente da tutte l'altre cose?</p>	<p>Concordia simul iunta, vinci non potest. <u>Cypria.</u> lib.1. Epist. (67a/ Pax조).</p>	<p>함께 뭉친 和合 화합 은 정복될 수 없 다. <u>/Cyprianus.</u></p>

<p>교우론 66장</p> <p>良友相交之味, 양 우 상 교 지 미</p> <p>失之後愈可知覺 실 지 후 유 가 지각</p> <p>矣. 의</p> <p>(영인본 11b).</p>	<p>좋은 벗과 서로 사귀는 맛(甘味) 감미</p> <p>은, (그를) 잃은 후에 더욱 知覺 지각</p> <p>할 수 있다.</p>	<p>62. Quanto sia soave l'amico, d o p p o d 'h a v e r l o p e r s o m o l t o p i ù l o c o n o s c e r a i .</p>	<p>A m i c i t i a e c o n s u e t u d i n e s , e t v i c i n i t a t e s , q u i d h a b e a n t v o l u p t a t i s . c a r e n d o m a g i s i n t e l l i g i m u s , q u a m f r u e n d o .</p> <p><u>Cic.</u> ad Quint. (64b)</p>	<p>만족스런 우정의 친교와 친근함은 우리가 享有할 때보다는, 없어져야 더 (크게) 느끼게 된다.</p> <p><u>/ Cicero.</u> (index,Societas et conversatio)</p>
<p>교우론 67장</p> <p>居染塵而狎染人, 거 염 전 이 압 염 인</p> <p>近染色, 근 염색</p> <p>難免無汚穢其身 난면 무 오 애 기 신</p> <p>矣. 의</p> <p>交友惡人, 교우 악인</p> <p>恒聽視其醜事, 항 청시 기 추사</p> <p>心習之而浼本心 심 습 지 이 매 본심</p> <p>焉. 언</p> <p>(영인본 11b).</p>	<p>염색 가게에서 물들이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쉽게 染色이 되어, 그 몸이 더럽게 물들지 않게 되기 어렵다.</p> <p>악인과 사귀면, (의심 없이) 늘 그 더러움을 視聽하게 되고, 심장에 익혀서, (자신의) 本心도 더럽히게 된다.</p>	<p>63. Chi conserva et habita con tintori, facilmente si tingerà. Chi fa amicitia con cattivi et sempre vede et ode le cose loro immonde, senza dubbio che l'imiterà et macchierà l'anima sua.</p>	<p>Si claudio vicinus ambulaveris, et ipse claudus ambulare disces. <u>Plut.</u> De lib. educ. (64a).</p>	<p>네가 절름발이와 가까이 걸으면, 절름발이 걸음도 배우게 된다.</p> <p><u>/Plutarchus.</u></p>
<p>교우론 68장</p> <p>吾偶候遇賢友, 오 우 후 우 현우</p> <p>雖僅一抵掌而別, 수 근 일 지 장 이 별</p> <p>未嘗少無裨補, 미상 소 무 비보</p> <p>以洽吾爲善之志 이 합 오 위 선 지 지</p> <p>也. 야</p> <p>(영인본 11b).</p>	<p>내가 賢友를 우연히 만나, 비록 잠시 동안만 신나게 손뼉 치며 이야기하고 헤어졌어도, 아무런 도움과 보탬이 되지 않은 때가 일찍이 없었으니, 내게 선행</p>	<p>64. Ogni volta c h ' i o m ' a c c o s t a r ò a q u a l c h e b u o n o a m i c o , b e n c h e p e r b r e v e s p a t i o d i t e m p o , s e m p r e u d i r ò a l c u n a c o s a b u o n a e t u t i l e p e r a u m e n t a r i n</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서도(p. 496-각주3) 찾지 못하였다.</p>	

	<p>意志를 洽足하 의지 흡족 게 (항상 제공) 하여 주었기 때 문이다.</p>	<p>me la virtù.</p>		
<p>교우론 69장 交友之旨無他在, 교우 지 지 무타 재 彼善長於我, 피 선 장 어 아 則我效習之, 즉 아 효 습 지 我善長於彼, 아 선 장 어 피 則我教化之. 즉 아 교화 지</p> <p>是學而卽教, 시 학 이 즉 교 教而卽學, 교 이 즉 학 兩者互資矣. 양자 호 자 의</p> <p>如彼善不足而效 여 피 선 부족 이 효 習. 습 彼不善不可以 피 불선 불가 이 變動, 변동 何殊盡日相與遊 하 수 진 일 상 여 유 謔, 학 而徒費陰影乎 이 도비 음영 호 哉? 재</p>	<p>벗을 사귀는 趣旨는 다른 데 취지 있는 것이 아니 라, 그(친구)가 나보다 더 나으 면, 즉 내가 본 받아 習得하려 습득 는 것이고, 내가 벗보다 나으면, 내가 (그를) 教化시키려는 것 교화 이다. 이런 배움이 곧 가르침이고, 가 르침이 곧 배움 이므로, 兩者가 양자 서로에게 資本 자본 (밑천)이 되는 것이다. 벗의 善이 부족 선 하여 본받아 習得할 것이 없 습득 고, 벗의 좋지 못 함 (不善) 이 불선 變動이 불가하다 변동 면, 어찌 盡終日 함 진종일 께 어울려 노는 것이, 또한 陰影 음영 (어둠)속에 (시간</p>	<p>65. Quando l'amico é miglior di me, l'intentione mia nel far seco amicitia deve essere d'imitarlo: ma s'io son di lui miglior, deve esser di convertirlo: ma se per avventura la sua virtù fusse tale che non si potesse imitar, ovvero tali le sue sceleraggini che non si potessero estirpar, a che effetto perder con lui tanto tempo?</p> <p><D'ELIA본 원주 />Un amicizia inutile é un rubare il tempo; [ora] rubare il tempo é</p>	<p>Recede in te ipsu m , q u a n t u m potes, cum his versare, qui te meliorem facturi sunt: illos admitte, quos tu facere potes meliores: mutuo ista fiunt, et homines dum docent, discunt. <u>Senec.</u> Epist. 7.(65a /Societas et conversatio조).</p> <p>H o m i n e m q u i c u m converseris, tribus modis considera: nempe, ut praestantiorem te, aut inferiorem, aut aequalem, aut aequantiorim te, aut auscultari, et</p>	<p>네가 할 수 있는 한 너에게로 깊숙이 들어가서 (지향), 그들이 너보다 낮게 행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라 (배워라). 네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다면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여라. 서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게 된다. <u>/Seneca.</u></p> <p>네가 사람을 사귄 때, 3가지 모습을 고려하라. 즉, 너보다 앞서거나, 혹은 너보다 못하거나, 혹은 동등한 경우인데, 너보다 월등한 이들에게는 귀를 기울이며 복종하는 것이 좋고(합당), 너보다 못</p>

<p><無益之友, <small>무익 지 우</small> 乃偷時之盜, <small>내 투 시 지 도</small> 偷時之損, <small>투 시 지 손</small> 甚於偷財. <small>심 어 투 재</small></p> <p>財可復積, <small>재 가 복 적</small> 時則否. > <small>시 즉 부</small> (영 인 본 11b/12a).</p>	<p>만) 虛費(徒費) <small>허비 도비</small> 하는 것이 아니 겠는가? < 無益한 벗은, <small>무익</small> 시간을 훔치는 도둑인데, 시간 을 도둑맞는 損失은 재물을 <small>손실</small> 도둑맞는 것보다 더甚하다. <small>심</small> 財物은 다시 찾 <small>재물</small> 을 수 있지만, 時間은 곧 그렇 <small>시간</small> 지 않다. ></p>	<p>peggio che rubare le ricchezze, [per ch é] queste si posso no acquistare di nuovo, mentre il tempo no, ></p>	<p>obtemperare con venit: inferiorem persuadere modeste: aequali autem consentire. Hoc sane modo nunquam in contentionem incidet. <u>Epictet.</u> apud Stob.(64ab).</p>	<p>한 이들은 잘 설 득하여라. 대등 한 이들과는 합 의(결탁)하라.</p> <p>이렇게 건전한 방법으로 (행동 하면) 너는 논쟁 에 빠지지 않는 다. <u>/Epictetus.</u></p>
<p><u>교우론 70장</u></p> <p>使或人未篤信 <small>사 혹 인 미 독신</small> 斯道, <small>사도</small> 且(脩)修德尙危, <small>차 수 수덕 상 위</small> 出好入醜, <small>출 호 입 추</small> 心戰未決. <small>심 전 미결</small></p> <p>於以剖釋其疑, <small>어 이 부 석 기 의</small> 安培其德, <small>안 배 기 덕</small> 而捄其將墜, <small>어 구 기 장 추</small> 計莫過於交善友. <small>계 막 과 우 교 선 우</small></p>	<p>혹 어떤 사람이 진리(斯道)에 대 <small>사도</small> 해 篤實한 믿음 <small>독실</small> 이 없고, 또 덕 을 修行하는데 <small>수행</small> 危機(危險)를 만 <small>위기 위험</small> 나면, 좋은 것은 내보내고 醜한 <small>추</small> 것은 받아들이므 로, 심장의 戰鬪 <small>전투</small> 에서 決斷을 내 <small>결단</small> 리지 못한다.</p> <p>그 의심을 解剖하고 풀어내 <small>해부</small> 어, 그 덕을 복 돋우고, 그의 墜落을 捄하려 <small>추락 구</small></p>	<p>66. S'alcuno non ben penetra ancora la verità, certo é ch'il proposito di costui di seguir la virtù sta in pericolo: et sendo ancor con l'animo irresoluto, hora seguirà il bene et hora il male. Dunque per toglier ogni dubbio a costui che sta per perdersi e fortificarlo nella virtù, non vi é il</p>	<p>Nulla res magis honesta inducit, dubiosque, et in pravum inclinatos revocat ad rectum, quam bonorum virorum conversatio, paulatim enim descendit in pectora, et vim paecepti obtinet: frequenter audiri, frequenter aspici, occursus mehercule sapientum</p>	<p>의심과 악의에 빠진 사람들을 바르게 선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착한 벗들 과의 대화만한 것이 없다.</p> <p>점차로 가슴에 젖어들고, 교훈 을 얻어, 때로는 듣고, 때로는 관 찰함으로써, 神 <small>신</small> 앞에 맹세코, 지 혜를 만나는데 (遭遇) 도움이 <small>조우</small> 된다.</p> <p>그러려면 네가</p>

<p>蓋吾所數聞, 개 오 소 수 문 所數觀, 소 수 도 漸透於膺, 점 투 어 응 豁然開吾. 활연 개 오</p> <p>誠若活法, 성 약 활법 勸責吾於善也. 권 책 오 어 선 야</p> <p>嚴哉君子, 엄 재 군자 嚴哉君子! 엄 재 군자</p> <p>時雖言語未及, 시 수 언어 미급 怒色未加, 노색 미 가 亦有感威以沮 역 유감 위 이 저 不善之爲與. 불선 지 위 여 (영인본 12a).</p>	<p>면, 좋은 벗과 사귀는 計策이 過하지 않다. 계책 과</p> <p>그러므로 내가 여러 번 듣고 보아, 차츰 가슴에 사무치면, 나도 豁然히 열리게 (깨치게) 되는 것이다. 활연</p> <p>(벗은) 活法(활용) 하고 응용하는 방법)과 같아서, 나를 선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권하고 꾸짖는다. 활법</p> <p>嚴肅한 君子여! 덕의 위대함이 여! 엄숙 군자</p> <p>(군자는) 비록 말이 없고, 怒氣가 없어도, 亦是 선하지 않은 것 (악)을 沮止하는 데 큰 威嚴이 있다. 노기 역시 저지 위엄</p>	<p>m i g l i o r e rimedio che dargli un buon amico, percioche quel ch'io sovente veggo et odo, a poco a poco s'instilla nell'animo, et mi penetra il cuore et mi fa tornar in me s t e s s o . L'amico é come una regola o legge viva che di continuo mi sta dinanti a g l ' o c c h i . G r a n d e grande é la forza della virtù: questo huomo non m'ha anco meo adirato, et pur con l'autorità sua mi ritiene e reffrena dal mal far ! .</p>	<p>iuvat: et est aliquid, quod ex magno viro vel tacente proficias. <u>Senec.</u> Epit. 75. (64b/ Societas et conversatio조).</p>	<p>위대하거나 과묵한 인간이 될지 어다. <u>/Seneca.</u></p>
<p>교우론 71장</p> <p>爾不得用我爲友, 이 부 득 용 아 위 우 而均爲嫵媚者. 이 균 위 무 미 자 (영인본 12b).</p>	<p>네가 나를 벗으로 삼고자(活用)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이다) 均等하게 아 활용 균등</p>	<p>* 71장의 이태리어 원문은 없고, D'ELIA 논문/ Se tu non puoi servirti di me come amico, noi</p>	<p>Non possumus aliquo uti amico, et adulateore. <u>Plut.</u> De p r a e c e p . connub. (55a).</p>	<p>우리들은 벗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아첨꾼이 될 수는 없다. <u>/Plutarchus.</u></p>

	<p>리따운 아침꾼 (무미자)일 뿐이다.</p>	<p>s i a m o ambedue degli adulatori.</p>		
<p><u>교우론 72장</u> 友者相褒之禮易 우 자 상 포 지 레 이 施也, 시 야 夫相忍友乃難矣. 부 상 인 우 내 난 의 然大都友之皆感 연 대도 우 지 개 감 稱己之譽, 칭 기 지 예 而忘忍己者之德 이 망 인 기 자 지 덕 何歟? 하 여 一顯我長, 일 현 아 장 一顯我短故耳. 일 현 아 단 고 이 (영인본 12b).</p>	<p>벗들이 서로 칭찬하는 禮(禮)에 (施興) 베풀기는 쉬우나, 서로 (비판을) 참아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大略(大概=大都) 벗들이 稱讚(칭찬)에는 두루 感應(감응)하면서도, 어찌 자기를 참아주는 사람의 덕은 忘却(망각)하는가? (그 까닭은) 하나는 나의 長點(장점)을 드러내고, 둘은 나의 短點(단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p>	<p>* 72장의 이태리어 원문은 없고, D'ELIA 논문/ La lode scambievole tra amici é una pratica facile, ma la m u t u a sopportazione tra amici é difficile. Ma perché la maggioranza degli amici sono sensibili alle lodi che [altri] dicono di loro e dimenticano le virtù di coloro che li sopportano? Perché le prime fanno apparire le mie qualità e le seconde i miei difetti.</p>	<p>Nihil sic probat amicis oneris portatio. <u>August.</u> in lib. 83. Quaest. Cap. 7. (62b).</p>	<p>아무도 벗의 짐(똥/단점)을 옮기듯이 벗을 칭찬하지는 않는다. /<u>Augustinus.</u></p>
<p><u>교우론 73장</u> 一人不相愛, 일인 불상애 則耦不爲友. 즉우 불위우 (영인본 12b).</p>	<p>(둘 가운데) 한 사람이 相對(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곧 그 짝은 벗이 아니다.</p>	<p>* D'ELIA 논문/ Se uno [dei due] non corrisponde all'amore [dell'altro], allora nessuno dei due é</p>	<p>Nisi uterque amet, neuter amicus. <u>Plut.</u> De amicis. (54b).</p>	<p>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둘은 벗이 전혀 아니다. /<u>Plutarchus.</u></p>

		amico. D'ELIA 논문/ Se [soltanto] Grave est al momento tunc sentire, del bisogno, qui non sunt mi accorgo amici, cum improvvisamente che egli amicis opus non é un est. Plut. De amico, che amic. et adult. tristezza! (55a)		
교우론 74장 臨當用之時, 임 당 용 지 시 俄識其非友也, 아 식 기 비 우 야 愍矣! 민 의 (영인본 12b).	用務(필요)가 있 용무 을 때에 臨하여, 임 갑자기 그가 벗 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랴!			벗들이 필요한 때에, 그들이 벗 이 아니라고 느 끼는 것은, 참으 로 힘든 일이다. /Plutarchus.
교우론 75장 務來新友, 무 래 신 우 戒毋諠舊者. 계 무 의 구 자 (영인본 12b). /cf.교우론48장.	(너희들은) 새 벗을 오도록 (만 드는데) 힘쓸지 라도, 옛 벗과의 友誼를 버리지 마라. 우의	* 75장의 이태 리어 원문이 없 어, D'ELIA 논 문/ Se volete far in modo che vengano nuovi amici, non vi dimenticate degli antichi. .	Novus parans amicos, ne obliviscere veterum. (D'Elia본 500- 각주 3에서, 작 자를 Erasmus.) + 내견해/Amici novi veteribus non sunt anteponendi. Cic. in laelio. (61a)./cf. 48장.	새 벗을 얻으려 고, 옛 벗을 잊 지 마라. + 내견해/ 새 벗들을 옛 벗들 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cf.교우론 48장)
교우론 76장 友也, 우 야 爲貧之財, 위 빈 지 재 爲弱之力, 위 약 지 력 爲病之藥焉. 위 병 지 약 언 (영인본 12b).	벗이란, 가난에 財産이요, 衰弱 재산 쇠약 에 힘이요, 병에 治療藥이다. 치료 약	74. L'amico é la robba del povero, la forza del fiacco et la sanità del amalato; e serve a ciascuno secondo il suo bisogno.	*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 에도(p. 500-각 주4) 찾지 못하 였다.	리치의 이태리어 번역문/ 벗이란 가난한 자의 재 산이요, 쇠약한 이의 힘이며, 병 자의 치료제로 서, 누구에게나 그 필요에 따라 서 (아주 알맞 게) 適用된다. 적용
교우론 77장 國家可無財庫, 국가 가 무 재 고 而不可無友也. 이 불가 무 우 야 (영인본 12b).	國家에 재물창고 국가 가 없을 수는 있 어도, 벗들이 없 어서는 안 된다.	73. Il re può star senza l'erario, ma non già senza amici.	*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 에도(p. 501-각 주1) 찾지 못하 였다.	
교우론 78장		* 78장에 대한	Benevolentia	

<p>仇之饋, 구 지 궤 不如友之棒也. 불 여 우 지 봉 야 (영인본 13a).</p>	<p>원수의 음식 (供饋)은 벗의 공궤 몽둥이질만도 (打棒) 못하다. 타봉</p>	<p>리치의 이태리어 원문이 없으므로, D'ELIA 논문의 번역문을 제시 한다./ I regali del nemico non valgono le bastonate dell'amico.</p>	<p>facit, ut amici vulenra, quam inimici oscula, utiliora sint. Ambros. 1 De offic. (62b). <= +내견해/ cf. P r a e s t a t r i d i c u l u s a m i c u s, q u a m g r a v i s i n i m i c u s . Plutar. de pulch. (54b). ++ Hostium dona non sunt dona. Demosth. in arg. lib. (p. 46b, 71b).</p>	<p>호의가 베풀어진 다면, 원수의 입 맞춤 (親口)보다 친구 는, 벗의 打擊이 타격 더 有用하다. 유용 /Ambrosius. <= +내견해/ cf. 근엄한 원수보다 는 어리석은 벗 이 더 낫다. /Plutarchus. ++ 적들의 선물 은 선물이 아니 다. /Demosthenes.</p>
<p>교우론 79장 世無友, 세 무 우 如天無日, 여 천 무 일 如身無目矣. 여 신 무 목 의 (영인본 13a).</p>	<p>벗이 없는 세상 은, 해가 없는 하늘과 같고, 눈 이 없는 身體와 신체 같은 것이다.</p>	<p>72. Il mondo senza amicitia sarebbe come cielo senza sole, e come c o r p o senz'occhi.</p>	<p>Solem e mundo tollunt, qui tollunt amicitiam. August. de amic. cap.7. (62b).</p>	<p>友情을 없애는 우정 것은 세상에서 해(태양)를 없애 는 것이다. /Augustinus.</p>
<p>교우론 80장 友者既久尋之, 우 자 기 구 심 지 既少得之, 기 소 득 지 既難存之, 기 난 존 지 或離于眼, 혹 이 우 안 卽念之于心焉. 즉 념 지 우 심 언 (영인본 13a).</p>	<p>벗이란 오래 동 안 찾더라도, 드물게 만나게 되고, 維持 유지 (存續)하기도 어 존속 려우므로, 혹 벗 이 눈(앞)에서 (隔離)떠나가면, 격리 곧 심장에 담아 기억(記念)해야 기념 한다.</p>	<p>70. Giacché tanto tempo cercaste amici, difficilmente gli ritrovaste, giacché con difficoltà si conservano, se forsi alcuni di essi dipoi s'allontarono</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 에 서도(p. 501-각 주4) 찾지 못하 였다.</p>	

		dagl'occhi, conviene col'animo ricordarsi sempre di loro.		
<p>교우론 81장</p> <p>知友之益, 지우지익 凡出門會人, 범출문회인 必圖致交一新友, 필도치교일신우 然後回家矣. 연후회가의 (영인본 13a).</p>	<p>벗의 有益함을 유익 아는 사람은, (집)문을 나서 사람을 만날 때 마다, 반드시 한 명의 새 친구를 사귀려고 試圖 시도 한, 然後에야 집 연후 으로 돌아온다.</p>	<p>69. Un che sapeva l'utilità che reca all'uomo l'amicitia, uscendo di casa non voleva mai ritornare senza far acquisto di qualche nuovo amico.</p>	<p>Epaminondas dicere solitus erat, non prius optimo viro interdu discedendum a foro esse quam sibi aliquem novum amicum conciliaret. Aelia lib. 12. (cf. A. E. II, 128a. / De Epaminonda).</p>	<p>Epaminondas 가 평소에 말하 기를, '낮에 문 앞에 좋은 벗이 있으면, 어떻게 든 새 벗의 환심 을 사기 전에는 헤어지지 말라' 고 하였다. /Aelianus.</p>
<p>교우론 82장</p> <p>諛諂(諛媚)友非 유첨유미우비 友, 우 乃儉者, 내투자 儉其名而僭(僭) 투기명이참참 之耳. 지이 (영인본 13a).</p>	<p>아첨하는 벗은 벗이 아니라, 도 둑으로서, 그(벗 이란) 이름을 도 둑질하고 僭稱할 참칭 뿐이다.</p>	<p>68.Gl'adulatori non sono veramente amici, se ben loro s'usurpano questo nome e se ne vantano.</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 에 서도(p. 501-각 주2) 찾지 못하 였다.</p>	
<p>교우론 83장</p> <p>吾福祉所致友, 오복지소치우 必吾災禍避之. 필오재와피지 (영인본 13a).</p>	<p>나에게 幸福 행복 (福祉= 福祚)이 복지 복조 이르게 한 벗은, 반드시 나에게 災殃도 避하게 재앙 피 해줄 것이다.</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문/ L'amico attirato dalla mia felicità ne sarà certamente allontanato dalle mie disgrazie.</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 에 서도(p. 501-각 주3) 찾지 못하 였다.</p>	

<p>교우론 84장</p> <p>友既結成, 우 기 결성 則戒一相斷友情, 즉 계 일 상 단 우정 情一斷, 정 일 단 可以故相著(着), 가 이 고 상 저 착 而難復全矣. 이 난 복 전 의</p> <p>玉器有所黏. 옥기 유 소 점 惡于觀, 오 우 관 易散也, 이 산 야 而寡有用耶. 이 과 유용 야 (영인본 13ab).</p>	<p>이미 (벗으로) 맺어졌으면, 일단 서로 우정이 끊기지(斷切) 않_{단절}도록 警戒해야_{경계} 하니, 한 번 끊어진 우정은, 서로 附着할 수는_{부착} 있지만, 完全하_{완전}게 復原하기는_{복원} 어렵기 때문이다.</p> <p>옥그릇에 붙은 티는, 보기에 醜惡하므로, (한견에) 밀어놓기(散置)_{산치} 쉽고, 쓸 모 (有用)가_{유용} (寡薄)적어진다._{과박}</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문/ Dopo di aver contratto un'amicizia, guardati dal rompere le relazioni di amicizia, perché una volta rotte, queste relazioni possono sì rattopparsi, ma é difficile di reintegrarle come prima. I vasi di giada che hanno delle macchie sono brutti a vedersi: é preferibile metterli da parte, perché son diventati poco utili.</p>	<p>Sicut quae compacta sunt, etiam glutine soluto, rursus colligari ac coire possunt: corpus autem quod natura iunxit si rumpatur aut scindatur, difficulter glutinari aut rursus potest coalescere: ita quas usus contradixit amicitias, eae, dissidio accidente, nullo negotio redintegrantur. (D'Elia본 503-각주 1에서, 작자를 Plutarchus 라 한다.)</p>	<p>흔히 풀로 붙여 稠密하게 된 것_{조밀} 들은 거듭하여 묶고 뭉치게 할 수 있다.</p> <p>그러나 선천적으로 결합된 신체는 끊어지고 찢어지고 나면, 다시 접합하거나 연결하기가 어렵다.</p> <p>이렇듯 우정의 모순 현상으로 서, 우연한 불목이 (생겨나면) 어떠한 수고(노력)로도 회복되지 않는다.</p>
<p>교우론 85장</p> <p>醫士之意, 의사 지 의 以苦藥瘳人病. 이 고 약 추 인 병</p> <p>諸友之向, 담우 지 향 以甘言于人財. 이 감언 우 인 재 (영인본 13b).</p>	<p>醫師의 意向은_{의사 의향} 쓴 약으로 사람의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다.</p> <p>(그러나)수다스런 벗의 속셈(志向)은, 甘言_{지향 감언}으로 사람의 財物을 (노리는)_{재물}</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문/ Mentre il medico vuol guarire la malattia dell'uomo con una medicina amara; l' amico aduttore con parole dolci</p>	<p>Sicut finis oratoris est, dictione persuasisse, et medici, medicina curasse: sic adulatoris est finis suaviloquio decepisse. Chrysost.</p>	<p>강연자의 목적이 연설로 설득하는데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은 약으로 병을 고치기를 바란다.</p> <p>이와 같이 아첨꾼의 목적은 달콤한 말(甘言利說)로 속_{감언이설}</p>

	데 있다.	mira alle ricchezze dell'uomo.	(243a).	이는데 있다. <u>/Chrysostomus.</u>
교우론 86장 不能友己, 불능 우 기 何以友人. 하 이 우인 (영인본 13b).	(네가) 너 자신의 벗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네가 다른 이의) 벗이 될 수 있겠는가?	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문/ Se non puoi essere amico di te stesso, come potrai essere amico degli altri?	Tibi potius, quam cuivis sis amicus. <u>Seneca</u> Epist. 9. (61b).	그 누구의 벗이 되기 전에, 먼저 너(자신)의 벗이 되어라. <u>/Seneca</u>
교우론 87장 智者欲離浮友, 지자 욕 이 부 우 且漸而違之, 차 점 이 위 지 非速而絕之. 비 속 이 절 지 (영인본 13b).	슬기로운 자는 가벼운(浮薄) 벗과 離別(이별)하려 할 때, 漸次(점차)적으로 멀리하지, 迅速(신속)하게 絶交(절교)하지 않는다.	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문/ Il savio che vuol allontanare da sé amici frivoli, li evita a poco a poco e non rompe con loro d'un colpo.	<u>A (i n i) 31</u> micitias quae n i m i s delectant, et m i n u s probantur, magis decere (s e n t i u n t sapientes) s e n s i m desinere, quam repente praecidere: <u>Cic.</u> 2. De off. (61a).	너무 쾌락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우정을 (지혜로운 자들은 이를 느낀다.) 불쑥 단절하기보다는, 점차로 끊어 버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u>/ Cicero.</u>
교우론 88장 欲於衆人交友則 욕 어 중인 교우 즉 繁焉, 번 언 余竟無冤(冤)仇, 여 경 무 원 구 則足己. 즉 족 기 (영인본 13b).	못사람을 벗으로 사귀려고 하는 것은 곧 繁雜(번잡)한 일이다. 나는 끝내 冤痛(원통)한 원수가 없는 것만으로, 滿足(만족) 하련다.	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문/ Voler essere l'amico di tutti, é c o s a complicata. Se in fin dei conti non ho n e s s u n n e m i c o , questo mi basta.	Omnes habere a m i c o s , operosum est, satis est inimicos non habere. <u>Sen.</u> Epist. 13. (63b).	모든 사람을 벗으로 삼기가 힘들니, 원수들을 갖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일이다. <u>/ Seneca.</u>
교우론 89장	벗도 아닌 그가	리치의 원본이	In rebus	하찮은 일로 동

<p>彼非友信爾， 피 비 우 신 이 爾不得而欺之。 이 부 득 이 기 지</p> <p>欺之至惡之之效 기 지 지 오 지 지 효 也。 야 (영인본 13b).</p>	<p>너를 신뢰하는 데, 네가 그를 欺瞞할 수는 없다. 기만</p> <p>(네가 그를) 기만한다면, (이는 그에 대한) 至極한 憎惡의 效果(結果) 때문일 것이다. 지극 증오 효과 결과</p>	<p>없어, D'ELIA 논문/ Se egli senza essere amico ha fiducia in te, tu non puoi ingannarlo. Se tu lo ingannassi, questo sarebbe il frutto di un grande odio contro di lui.</p>	<p>minimis socium fallere turpissimum est: propterea quod se putat auxilium sibi adiunxisse, qui cum altero rem communicaverit. Cicero pro Roscio. (64b).</p>	<p>료를 배신하는 것은 아주 醜雜한 것이다. 추잡</p> <p>왜냐하면 (동료가) 자기에게 도움(援兵)을 줄 것으로 豫斷하고, (실제로는 戰利品)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Cicero.</p>
<p>교우론 90장</p> <p>永德永友之美餌 영 덕 영 우 지 미 이 矣. 의</p> <p>凡物無不以時久 범 물 무 불 이 시 구 爲人所厭, 위 인 소 염 惟德彌久彌感 유 덕 미 구 미 감 人情也. 인 정 야</p> <p>德在仇人猶可愛, 덕 재 구인 유 가애 況在友者歟? 황 재 우 자 여 (영인본 13b).</p>	<p>永久(오랜)한 덕은 永遠한 友情의 맛있는 먹이(食餌)이다. 영구 영원 우정 식이</p> <p>모든 물건(凡物)은 예외 없이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들에게 厭症이 나게 하지만, 오직 德行만은 오래될수록 人情을 두루 感動시킨다. 범물 염증 덕행 인정 감동</p> <p>원수가 지닌 덕도 사랑할 만 하거늘, 하물며 벗이 지닌 덕이야 어떠하랴?</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문/ La virtù perenne é una ottima esca per una eterna amicizia. Tutto, senza eccezione, alla lunga diventa una noia per l'uomo; solo la virtù, quanto più dura, tanto più commuove i sentimenti dell'uomo. Se la virtù presso il nemico é ancora amabile, che sarà presso l'amico?</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 서도(p. 504-각주3) 찾지 못하였다.</p>	

<p>교우론 91장</p> <p>歷山王(大西域 력산왕 대서역 古總王), 고총왕, 值事急躬入大陣, 치사급궁입대진, 時有弼臣止之曰, 시유필신지지말 乎? 호</p> <p>事險若斯, 사험약사, 陛下安以免身 폐하안이면신 乎? 호</p> <p>王曰, 왕왈, 汝免我于詐友, 여면아우사우 且顯仇也, 차현구야 自乃能防之. 자내능방지 (영인본 14a).</p>	<p>알렉산더 大王 대왕 (西域의 옛 황 서역 제)이 몸소 큰 전쟁(陣中)에 뛰 진중 어들어 危急한 위급 상황에 처하자, 當時 輔弼하는 당시 보필 신하가 (왕을) 制止하며 말하기 제지 를, ‘危險이 이 위험 와 같은데, 陛下 폐하 께서는 어떻게 避身하여 安全 피신 안전 을 도모하시립니 까?’</p> <p>왕이 대답하기 를, ‘네가 나를 거 짓 벗들에게서 벗어나게(보호) 하면, 나는 또 (드러난 원수로 부터) 스스로 防禦할 수 있을 방어 것이다.’ 라고 하였다.</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 문/ Il re Alessandro, a n t i c o imperatore dell'Occidente, proprio nel m o m e n t o grave si gettò in persona nella mischia; allora un suo Ministro lo f e r m ò dicendogli: "Il pericolo é così grande; come farà Vostra Maestà a salvarsi ? " A cui il re rispose: " Tu difendimi dai falsi amici, perché dai n e m i c i manifesti io stesso mi p o t r ò difendere ".</p>	<p>H i c [Antigonos rex] diis s c r i f i c a n s precabatur ut se a simulatis s e r v a r e t amicis: c u m q u e percuntaretur q u i s p i a m quam ob rem tale quid a diis optaret. Quia, inquit, hostes cum c o g n o s c o caveo.</p>	<p>이 사람 [Antigonos 왕] 은 神들에게 제 신 사를 드리면서, 벗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심해야할지를 기도(염려)하였 다. 또한 사정이 이 러하여, (벗들 중에) 어느 누구 를 神들이 더 신 원하는지를 물었 다. 그는 말하기를, '왜냐하면, 적들 은 내가 잘 알아 조심하기 때문이 다.' 라고 하였 다.</p>
<p>교우론 92장</p> <p>歷山王亦冀交友 력산왕역기교우 賢士名爲善若. 현사명위선약</p>	<p>알렉산더 왕이 또한 선약(=포치 온) 32) 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 진 선비와 벗이 되기를 바랐다.</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 문/ Il re Alessandro, sperando pure di contrarre amicizia con un savio di nome Focione, 32) prima gli</p>	<p>Misit illi [Phocioni] d o n o Alexander ex Persica gaza bello partu magnum auri pondus. Tum Phocion iis qui id</p>	<p>알렉산더 왕이 전쟁으로 얻은 Persia의 왕실 금고의 황금 덩 어리를 Phocion 에게 선물로 보 냈다. 그러자 포치온이 선물을 가져온</p>

<p>先使人奉之以數 <small>선 사인 봉 지 이 수</small> 萬金. <small>만 금</small></p> <p>善弱佛而曰, 王 <small>선 약 불 이 왈, 왕</small> 賜吾以茲意吾何 <small>황 오 이 자 의 오 하</small> 人耶? <small>인 야</small></p> <p>使者曰, 否也, <small>사자 왈, 부 야</small> 王知夫子爲至廉, <small>왕 지 부자 위 지 령</small> 是奉之耳. <small>시 봉 지 이</small></p> <p>曰, 然則當容我 <small>왈, 연 즉 당 용 아</small> 爲廉已矣, 而摩 <small>위 령 기 의 이 마</small> 之不受, <small>지 불 수</small></p> <p>史斷之曰, 王者 <small>사 단 지 왈, 왕자</small> 欲買士之友, 而 <small>욕 매 사 지 우 이</small></p>	<p>(그래서) 먼저 使者를 시켜 <small>사자</small> 數萬金을 (奉獻) <small>수만 금 봉헌</small> 주려고 하였다.</p> <p>선약이 발끈하여 이르기를, ‘왕께 서 나를 어떤 사 람으로 판단하여 (황금을) 주시려 는가?’</p> <p>使者가 대답하기 <small>사자</small> 를, ‘아닙니다. 왕께서는 선생 이 至極히 清廉 <small>지극 청렴</small> 하시다는 것을 아시고, 이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고 하 였다.</p> <p>(포치온이) 말하 기를, ‘그러면 내가 清廉하기를 <small>청렴</small> 當然히 受容하 <small>당연 수용</small> 십시오.’ 하며, 받지 않는다고 손짓(撫摩)하였 <small>무마</small> 다.</p> <p>史官은 斷言하 <small>사관 단언</small> 기를, ‘왕이 선 비의 우정을 購買하려고 하였 <small>구매</small> 으나, 선비가</p>	<p>m a n d ò qualcuno che gli offrì parecchie diecine di migliaia di monete d'oro. Ma Focione adiratosi gli disse : "Facendomi queste regalo, chi crede il re che il sia? " E il messo rispose: " No, il re sa che Lei, dottore, é un uomo incorruttibile ". E non volle accettare nemmeno la minima cosa. Lo storico conchiude dicendo: " Il re voleva comprare l'amicizia del letterato, ma il letterato non</p>	<p>attulerunt: " Dicitte ", inquit, "quid sequutus Rex vester, me unum ex omnibus Atheniensibus dignum tali iudicavit munere"? Responsum est: Quoniam te omnium Graecorum optimum arbitratur. "Sinite igitur me eum esse", inquit Phocion, "quem ille autumat." Credit homo continentiae amicus, nec bonum esse virum, nec haberi oportere eum, cui in libera civitate nato regium sit aurum curae. Magnus quidem Alexander, sed Phocion maior, qui cum pauper esset, tantum</p>	<p>이들에게, ‘전하 여라. 내가 너희 왕의 말을 따르 는 것이, 모든 아테네인들에게 뇌물을 받는 사 람으로 여겨지 지 않겠는가?’</p> <p>(이에 대한 신하 들의) 대답은: ‘선생님을 희랍 인들 가운데서 가장 선한 사람 으로 여길 것입 니다.’</p> <p>(그러자) 포치온 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앞선 善인이 되게) 그 <small>선인</small> 말대로 나를 그 대로 내버려 두 어라.’</p> <p>(왕은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을 벗으로 믿었고, 선인을 (적절한) 사람으로 여기거 나, 자유 시민 출신이어야 왕실 보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지 는 않았다.</p> <p>그러므로 알렉산 더가 대왕이었으 나, 가난했던 포 치온이 더 뛰어</p>
--	--	---	--	--

<p>士者毋賣之. 사 자 무 매 지 (영인본 14a).</p>	<p>賣却하지 않았 매각 다.' 고 하였다.</p>	<p>la vendette "</p>	<p>munus cum muneris auctore comtempserit. <u>Sab.</u> lib. 2. (A.E.II,314b.: cf. 177b).</p>	<p>났던 까닭은, 그 가 직책상 뇌물 의 대상자가 되 기를 거부(경 멸)했기 때문이 었다. <u>/Sabellicus.</u></p>
<p>교우론 93장</p> <p>歷山王未得總位 력 산 왕 미득 총 위 時, 시 無國庫. 무 국고</p> <p>凡獲財厚頒給與 범 획 재 후 반급 여 人也. 인 야</p> <p>有敵國王富盛, 유 적국 왕 부성 惟事務充庫. 유 사무 충 고</p> <p>譏之曰, 기 지 말 足下之庫在於 족하 지 고 재 여 何處? 하처</p> <p>曰, 在於友心也. 말 재 여 우 심 야 (천학초함 영인 본 318). 33)</p>	<p>알렉산더 왕이 아직 황제가 되 지 않았을 때에 는, 國庫가 없었 다.</p> <p>獲得한 모든 재 획득 물은 후히 사람 후 들에게 나누어 (頒給) 주었다. 반급</p> <p>(한편) 敵國의 적국 왕은 재물이 많 고 넉넉(富盛)하 부성 였고, 오직 倉庫 창고 를 채우기에만 열중하였다.</p> <p>(그래서) 비웃으 며(譏笑) 이르기 기소 를, ‘陛下(足下) 페하 족하 의 창고는 어디 에 있는가?’ 하 였다. (이에) 대답하기 를, ‘벗의 마음</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 문/ Quando il re Alessandro non era ancora salito sul trono imperiale, non aveva erario nazionale; tutte le ricchezze che acquistava, generosamente le distribuiva agli altri. Un re di un paese nemico, molto ricco e che non si occupava che di riempire il suo tesoro, beffandosi di lui gli disse: " Dov'è il tesoro di Vostra Maestà? " A cui egli rispose: " Nel cuore degli</p>	<p>[Alexander] interrogatus a quopiam ubi thesauros haberet, amicos ostendens "In his", inquit. = 위엣 자료의 출처를 D'ELIA 논문에선 (p. 507-각주 1), Loc i Communes Sententiarum, p. 215. 이라고 한다.</p>	<p>알렉산더 왕이 '보물들을 어디 에 보관하느냐?' 는 질문을 받았 을 때, 벗들을 가리키며, '이 벗들 안에 (들어 있다.)!'고 하였 다.</p>

	속에 있습니다. 고 하였다.	amici. "		
<p>교우론 94장</p> <p>昔年有善待友而 <small>석년 유 선 대 우 이</small></p> <p>豐惠之, <small>풍 혜 지</small></p> <p>將盡本家產也. <small>장 진 본 가산 야</small></p> <p>傍人或問之曰, <small>방인 혹 문 지 말</small></p> <p>財物畢與友, <small>재물 필 여 우</small></p> <p>何留於己乎? <small>하 류 여 기 호</small></p> <p>對曰, <small>대 말</small></p> <p>惠友之味也. <small>혜 우 지 미 야</small></p> <p>< 別傳對曰, <small>별전 대 말</small></p> <p>留惠友之冀也. <small>류 혜 우 지 기 야</small></p> <p>意俚異而均美 <small>의 리 이 이 균 미</small></p> <p>焉.> <small>언</small></p> <p>(천학초함 영인 본 318).</p>	<p>예전에 벗을 잘 待接하고 豐盛 <small>대접 풍성</small></p> <p>하게 恩惠를 베 <small>은혜</small></p> <p>풀어, 本집의 <small>본</small></p> <p>家産을 蕩盡하 <small>가산 탕진</small></p> <p>려는 사람이 있 었다.</p> <p>(그러자) 가까이 있던 사람(傍人) <small>방인</small></p> <p>이 묻기를, ‘재 물을 벗에게 모 두 주어버리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 소?’ 하였다. 대답하기를, ‘벗 에게 은혜를 베 푸는 맛이 (남) 지요.’ 하였다.</p> <p><別傳에는, ‘ 벗 <small>별전</small></p> <p>에게 은혜를 베 풀 수 있다는 바 람이 남지요.’라 고 대답하였으 니, 그 意味가 <small>의미</small></p> <p>촌스럽게 다르지 만, 均等하게 아 <small>균등</small></p> <p>름다운 말이다.></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논 문/ Negli anni passati ci fu qualcuno che trattava bene i suoi amici e abbondanteme nte li beneficava fino ad essere sul punto di esaurire il patrimonio di famiglia. Qualcuno dei vicini gli domando': "Voi avete dato tutte le ricchezze agli amici: che cosa vi rimane a voi? " A cui egli rispose: Il " piacere di a v e r beneficato gli amici. "</p>	<p>[Alexander] haud prius co n s c e n d i t navim quam, r e b u s s o c i o r u m i n s p e c t i s, huic pagum, illi agrum, reditum huic vici, illi p o r t u s tribueret. Iam regiis b o n i s o m n i b u s p r o p e distributis et transcriptis, Perdicas: " Tibi vero", ait, " o rex, q u i d reservas"? Quumque A l e x a n d e r spes sibi retinere sese responderet, "Ergo", inquit, "nos etiam tui commilitones eas habituri sumus tecum communes".</p>	<p>알렉산더 왕은 배에 오르기 전 에 먼저 동료들 을 살펴보고, 이 사람에게는 시골 전원을, 저 장정 에게는 항구 관 세 수입을 분배 해 주도록 (지 시)하였다. 이미 모든 왕실 재물을 거의 다 분배하고 (문서 로) 양도하였으 니, “오 임금님, 당신께 남는 것 은 무엇입니까?” 하고 너는 결론 을 내릴 것이다. (이에) 알렉산더 는 자기에게 남 는 것은 희망이 라고 대답할 것 이고, ‘ 그러므 로 우리들은 그 전우들이 공동재 산으로서 너와 함께 영속할 것 이다.’ 라고 알 렉산더는 말할 것이다. (D'ELIA 논문 p. 507-각 주2에서, 작자를 Plutarco라 함.</p>
<p>교우론 95장</p> <p>古有二人同行, <small>고 유 이인 동행</small></p>	<p>예전에 두 사람 이 함께 길을 가 고 있었는데, 하 나는 아주 富裕 <small>부유</small></p>	<p>67. Andavano una volta doi insieme, uno d'quali era</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 서도(p. 508-각 주1) 찾지 못하</p>	<p>< 友之物皆與 <small>우 지 물 개 여</small></p> <p>共. <small>공</small></p> <p>벗의 모든 것</p>

<p>一極富, 일 극 부</p> <p>一極貧. 일 극빈</p> <p>或曰, 혹왈</p> <p>二人爲友至密矣. 이인 위 우 지밀 의</p> <p>竇法德 (古者 두 법 덕 고 자</p> <p>名賢) 聞之曰, 명현 문 지 왈</p> <p>既然, 기 연</p> <p>何一爲富者, 하 일 위 부자</p> <p>一爲貧者哉? 일 위 빈자 재</p> <p>< 言友之物皆與 언 우 지 물 개 여</p> <p>共也 > 공 야</p> <p>(천학초함 영인 본 318).</p>	<p>하고, 하나는 아 주 貧寒하였다. 빈한</p> <p>어떤 사람이 말 하기를, ‘두 사 람은 벗으로서 아주 親密합니 친밀</p> <p>다.’고 하였다. (이에) 竇法德 두 법 덕</p> <p>(옛날의 有名한 유명</p> <p>賢者)이 듣고 가 현자</p> <p>로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는 富者인데, 또 하 부자</p> <p>나는 貧者인가?’ 빈자</p> <p>하였다. < 말인즉, ‘벗의 모든 것(物)은 두루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p>	<p>povero e l'altro ricco. Un certo disse a Teofrasto (antico filosofo) " questi doi s o n o grandissimi amici. " Al che Teofrasto rispose: " se cosi é, come dunque l'uno é povero, e l'altro é ricco ? " < volendo significar che le cose degl'amici sono comuni > (cf.교우론 29장)</p>	<p>였다. (cf.교우론29장)</p>	<p>(物)은 두루 공 유해야 한다. > (cf.교우론 29장) (영인본 8a).</p>
<p>교우론 96장</p> <p>昔有人求其友以 석 유 인 구 기 우 이</p> <p>非義事, 비의 사</p> <p>而不見與之, 이 불 견 여 지</p> <p>曰, 왈</p> <p>苟余不與我所求, 구 이 불 여 아소 구</p> <p>何復用余友乎? 하 부 용 이 우 호</p> <p>彼曰, 피왈</p>	<p>옛적에 한 사람 이 도리에 맞지 않는 일(不義)을 벗에게 請求하였 청구</p> <p>으나, 도움(施與) 시여</p> <p>을 보지 못하자, (벗에게) 말하기 를, ‘바로 당신 이 내가 要求하 요구</p> <p>는 바를 들어주 지 않으니, 당신 의 友情이 다시 우정</p> <p>무슨 所用이 있 소용</p> <p>겠습니까?’ 하였 다.</p>	<p>71. Un'amico chiese una volta all'altro una cosa fuori di ragione, et essendogli negata, dissegli: " Se voi non mi concedete quello che vi chiedgo, a che mi serva la vostra amicitia ? " Al che l'altro rispose: " E se</p>	<p>Cum [Pblius Rutilius] amici cuiusdam iniustae rogationi resisteret, atque is per summam indignationem dixisset: " Quid ergo", inquit, "mihi opus est amicitia tua, si quod rogo, non facis"? respondit:</p>	<p>[P b l i u s Rutilius] 가 벗 의 부당한 요청 을 거절하려 하 자, 그 벗이 크 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청해도 들 어주지 않는 당 신의 그런 우정 이 내게 무슨 소 용이요?' 하였 고, (이에) 대답하기</p>

<p>苟尔求我以非義 구 이 구 아 이 비의 事, 사, 何復用尔友乎? 하 부 용 이 우 호 (천학초함 영인 본 319).</p>	<p>저(벗)가 대답하 기를, '바로 당 신이 도리에 맞 지 않는 일 (不義)을 내게 (불의) 청구하고 있으 니, 당신의 우정 이 또 무슨 所用이 되나요?' (소용) 라고 하였다.</p>	<p>voi mi chiedete cosa fuori di ragione, a che serverà a me la vostra ? "</p>	<p>"Immo quid mihi tua, si propter te aliquid inhoneste facturus sum"? Max. lib.6.(cf. A . E . I I , 1 2 1 b / D e gravitate et maiestate 조).</p>	<p>를, '정 그렇다 면, 당신 때문에 나를 불명예스럽 게 만들려는 당 신의 그 우정은 또 무엇이오?'하 며, 대꾸하였다. / (Valerius ?) Maximus. (權威와 威嚴에 권위 위엄 대한 條項). 조항</p>
<p>교우론 97장</p> <p>西土之一先王, 서토 지 일 선왕 曾交友一士, 증 교우 일 사 而腆養之于都中, 이 전 양 지 우 도중 以其爲智賢者. 이 기 위 지 현자</p> <p>日曠不見陳諫, 일 광 불 견 진 간 卽辭之曰. 즉 사 지 왈</p> <p>朕乃人也, 짐 내 인 야 不能無過, 불능 무 과 汝莫見之, 여 막 견 지 則非智士也. 즉 비 지 사 야</p>	<p>西域에 옛 임금 이 있었는데, 일 찍이 한 선비를 사귀어, 都城에 두고 도답게 그 를 지혜로운 賢者로 대우하였 다. 현자</p> <p>나날들이 지나도 諫言을 (올리는 간언 것을) 보지 못하 자, 곧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p> <p>朕도 사람이어 짐 서, 잘못이 없을 수 없으니, 내가 發見하지 못했다 면, (너는) 곧 지 혜로운 선비가 아닐 것이다. 발견</p>	<p>리치의 원본이 없어, D'ELIA 본 / Un antico re dell'Occidente contrasse amicizia con un letterato che manteneva magnificament e nella capitale , perché lo credeva dotto/ e savio. I giorni passavano senza che [il re] vedesse farsi dei rimproveri. Allora lo licenziò dicendo: " Noi siamo uomini e non possiamo essere senza difetti. Se tu non li vedi,</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 서도(p. 509-각 주2) 찾지 못하 였다.</p>	

<p>見而非諫, 견 이 비 간 則非賢友也. 즉 비 현우 야</p> <p>先王不見諫過, 선왕 불 견 간 과 且如此, 차 여차</p> <p>使值近時文飾過 사 지 근시 문 희 과 者當何如?. 자 당 하 여</p> <p>(천학초함 영인 본 319) + (영인 본 15b).</p>	<p>(네가) 발견하고 도 諫言을 하지 않으면, 곧 賢友 가 아니다.</p> <p>先王이 過失을 지적(諫)받지 못 했다 하여, 또 이와 같이 하였 으니, 바로 가까운 이 시대에 (자기) 過失을 글로 꾸 미는(文飾,美化) 자들은 이런 경 우를 당하면 어 떻게 할까?</p>	<p>non sei un letterato dotto: se tu li vedi e non Ci fai dei rimproveri, allora non sei un amico savio. " Questo antico re agì in questo modo perché non fu ripreso dei suoi difetti. Che dire di coloro che proprio in questi ultimi t e m p i ricoprono i loro difetti?.</p>		
<p>교우론 98장</p> <p>是의亞 (是北方 國名) 俗, 獨多得友者, 稱之謂富也. (영인본 15b).</p>	<p>쉬티아(북방 왕 국 이름)에 한 풍습이 있는데, 惟獨 많은 벗들 을 얻어야만, 일 러서 부자라 稱 하였다.</p>	<p>75. Nella Scithia, ch'è un Regno nel Settentrione, é un costume che non c h i a m a n o ricco, se non chi tiene molti amici.</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 서도(p. 510-각 주2) 찾지 못하 였다.</p>	
<p>교우론 99장</p> <p>客力所 (西國 王名) 以匹夫得 大國, 有賢人問, 得國之所行大旨.</p>	<p>크레소(서쪽나라 의 왕 이름)는 匹夫로서 큰 왕 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賢者 가 있어 묻기를, ' 왕국에서 施行 하여 이루려는</p>	<p>76. Creso, che fu un Re nell'Occidente, d ' h u o m o privato ch'era, ottene un gran Regno. et' essendogli da un savio domandato per</p>	<p>*직접적인 자료 를 D'ELIA 논 문 에 서 도 (p . 510-각주3) 찾 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추 정을 제시하고 있다. [S o c r a t e s] C r a e s u m</p>	<p>[Socrates]가 Craesus에게 묻기를, '나라에 서 일어나는 것 들 가운데서 어 떤 것이 가장 크 고 중요한가?' 하였는데, 크레소가 대답하</p>

<p>答曰, 답 알 惠我友, 혜 아 우 報我仇. 보 아 구</p> <p>賢曰, 현 알 不如惠友而用恩 불 여 혜 우 이 용 은 俾仇爲友也. 비 구 위 우 야 (영인본 15b).</p>	<p>큰 뜻이(大旨,大 대지 대 意) 무엇인가? 의 하고 물었다. (왕이) 대답하 기를, “내 벗들 에게는 恩惠를 베 은혜 풀고, 나의 원수 들에게는 앙갚음 을 하는 것”이 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현자가 이르기를, “벗들 에게 은혜를 베 품과 더불어, 은 혜를 利用하여 이용 원수를 벗으로 얻는 것만 같지 않다.”고 했다.</p>	<p>che causa più si rallegrasse d'haver quel Regno, rispose: " Per che posso far bene agl'amici et n u o c e r agl'inimici." Allora disse il Savio: " Meglio sarebbe far bene agl'amici et con b e n e f i c i j guadagnarsi anco gl'inimici. "</p>	<p>interrogans, quid esset maximum et pretiosissimu m ex regno consecutus, ille que respondisset, ut hostes ulcisceretur, et amicos beneficos afficeret: " multo", inquit, "melius fecisses, si et illos tibi a m i c o s ascivisses.</p>	<p>기를, ‘적들에게 복수하고, 벗들 에게 잘 해주는 것이다.’ 하니,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당신 이 그(적)들도 벗들로 받아들인 다면 훨씬 더 좋 고 잘하는 것이 다.’고 하였다. (원천 자료는 D'ELIA 본 p. 510- 각주 3에 서, Loci Communes Sententiarum, p. 214라 한다.</p>
<p>교우론 100장</p> <p>墨臥皮(古聞士 목 와 피 고 문 사 者) 折開大石榴, 자 절 개 대 석류, 或人問之曰. 혹 인 문 지 알 夫子何物願獲 부자 허물 원 획 如其子之多耶? 여 기 자 지 다 야 曰, 알 忠友也. 충우 야 (영인본 15b).</p>	<p>메가피토(옛날 널리 알려진 선 비)가 씨앗이 든 큰 石榴를 가르 석류 자, 어느 누가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그(석류 의) 씨앗이 이토 록 많은 것처럼, 무엇을 (많이) 獲得하고 싶습니 획득 까?’ (목와피가) 대답하기를, “민 음직한 벗들입니 다.” 고 했다.</p>	<p>77. Megapito. filosofo molto f a m o s o , m e n t r e rompeva un gran pomo granato gli fu domandato di che cosa desiderarebbe haver tanti, quanti erano i grani di quel Pomo. Rispose: " Di fedeli amici ".</p>	<p>* 원천 자료를 D'ELIA 논문에 서도(p. 511-각 주1) 찾지 못하 였다.</p>	

31) 교우론 87장의 출처 원문에 기록된 **Cicero**의 Inimicitias(敵意)를 엘리아 신부는 情況상 오류로 보
고, 말없이 Amicitias(友情)으로 바꾸었다.
적의 우정

32) D'Elia논문 각주에서(p.505), Ricci 신부가 **Focione** 를 **Zenone**(善若)로 혼동한 것 같다고 한다.
선약

33) 로마 예수회의 고문서고 영인본에는 14b-15a(1장, 교우론 93장부터)이 누락되어 있어, 천학초합 영
인본, 羅光 主教, 중화민국 53년(1964) 臺北市발행을 인용한다.

<p>萬曆二十三年 만력 이십 삼 년</p> <p>歲次乙未 세차 을미</p> <p>三月望日 삼월 망 일</p> <p>(영인본 15b).</p> <p>大西洋修士 대서양 수사</p> <p>利瑪竇集. 리마두 집</p> <p>(D'ELIA 논문에 실린 로마 도서관 Vittorio Emanuele 본).</p>	<p>萬曆(明皇帝) 만력 명 황제</p> <p>23 년, 간지로는 乙未년 을미</p> <p>(1595), 3월 15일.</p> <p>대서양 修士 수사</p> <p>리마두 集. 집</p>	<p>78. Nell'anno 23 del re Vanlie[萬曆], 만력</p> <p>l'anno che si chiama Jeui [乙未], nella 을미</p> <p>3a luna 34) un filosofo delli m o n t i dell'Occidente, Matteo Ricci da Macerata pose insieme queste cose.</p>	<p>萬曆王(明皇帝) 만력 왕 명 황제</p> <p>23년, 干支로는 간지</p> <p>乙未년 (1595), 을미</p> <p>3월에 西山의 서산</p> <p>철학자로서, 마 체라타 출신의 마태오 리치가 이 문서를 동봉 하였다.</p>
--	---	---	---

5-1. [교우론]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간관계 중 벗의 관계를 (하느님)上帝께서 내려주신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上帝(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눈과 두 귀, 한 쌍의 손과 한 쌍의 발을 주셨는데, 둘이 서로 돕는 (同僚)벗이 되어서, 일을 완성하기 위한 方策인 것.”이라고 하였다. (교우론 56장). “ 각 사람들이 모든 일에 完全을 다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上帝께서는 벗을 사귀도록 명하시어, 피차 서로 돕도록 하신 것이다. 만약 세상에서 이 道理(우정)를 除去해버린다면, 人類는 반드시 흩어져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교우론 16장)고 하였다. 35)

5-2. 이같이 우정을 하느님께서 명하신 인간의 기본관계로 보면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성 아우구스티노와 치체로, 세네카 등의 격언을 약간씩 변용하여 인용하고 있다.

‘벗은 형제(昆弟) 무리와 가까운(같은) 것이어서, 그러므로 벗들은 서로 형이라 부르고, 또한 벗들이 형제들보다 더 사이가 좋다(親善)고 한다.’ (友於昆倫邇 故友相呼謂兄 而 친선 우 어 곤 룬 이 고 우 상호 위 형 이

34) cf. FR I, p.368 nota 1. / = 3월이 아니라 11월이지만, Ricci 도 어쩔 수없이, 이미 출판되어 나온 날짜를, 구태여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썼다.

35) 天主의 이름을 사용하여 오다가, 문헌상으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上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천주실의]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FR, N 246 참조.

善於兄弟爲友, 교우론 36장, 영인본 8b). 리치는 이 내용을 성 아우구스티노의 ‘모든 사람
선 어 형제 위 우
들은 서로서로 형제들이다.’에서 가져왔다. (Fratres homines omnes inter sese.
Augustinus. lib. 2. Contra Academicos. cf. A. E. II, 251b/Affinitas, 친척親戚/친밀親密 목록).

“벗은 친척親戚보다 나으니, 친척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친밀한 벗은 그렇지
(사랑하지 않을 수) 않다. 친척이 친척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친척의 윤리倫理는 존재한다. 그러
나 우정에서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그 우정의 도리道理가 어디에 남아(잔존殘存) 있겠는가? ” (교우론
50장 / 영인본 9b / 友於親 惟此長焉. 親能無相愛 親友者否. 蓋親無愛親 親倫猶在. 除愛乎
우 어 친 유 자 장 언 친 능 무 상 애 친 우 자 부 개 친 무 애 친 친 윤 유 재 제 애 호
友其友 理焉存乎?). 이 내용은 라틴 철학자 치체로(키케로, bc 106-43)의, ‘ 벗이 친척보다
우 기 우 리 언 존 호
나으니, 친척에게서는 호의(사랑)를 제거할 수 있으나, 벗에게서 호의(사랑)를 제거할 수는 없
다. 그러므로 호의(사랑)를 제거하면 우정이란 이름도 사라지지만, (호의/사랑을 제거해도) 친
척이란 이름은 남는다. (Ciciero).’ 는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D'ELIA본 p.489의 각주 1에서
밝히고 있다.(Cicierone, Lael. 519, in BSGRT, p.53). 36)

6. 교우론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6-1. 유몽인(1559-1623)은 [교우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小窓記]와 [續耳譚]에 利瑪竇에 관한 사적과 利瑪竇가 지은 [友論] 및 [銅
소창 기 속 이 담 이 마 두 리 마 두 우 론 동
渾儀], [坤儀], [輿圖八幅] 등이 실려 있는데, 매우 상세하다.’ 37)

‘天竺의 서쪽에 나라가 있어 歐羅巴라고 하는데, 구라파란 그 지역 말로 “커다란 서
천축 구라파
쪽 大西”이란 뜻이다. --그곳 풍속은 혼인하는 것을 숭상하지 않고, 평생토록 여색을 가까이
대 서
하지 않는 사람을 택해 君長으로 삼고, 教化皇이라고 부른다. 천주의 뜻을 이어받아, 가르침
군 장 교화 황
을 베풀고 세상을 깨우치는데, 세습하지 않고 현자를 택하여 세운다. 또한 자녀가 없이 오직
백성들을 자식으로 삼는다. --그 선비(修士)는 수사벗들 간의 사귀를 중히 여기고 (其士重朋友之
交), 대다수가 천문과 별자리에 정통하다.’ 38)

6-2. 이수광(1563- 1628)도 지봉유설에서, 마태오 리치 신부가 지은 [천주실의]와 함
께 [교우론]을 중우론이란 이름으로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36) cf. 沈定平, 이경규외 번역, 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史 XIII, 2010 부산교회사보 68호, p. 83.
37) 유몽인 지음, 신익철, 이형대, 종용희, 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14년 4판, p. 216.
38) 유몽인 지음, 앞의 책, p. 214.; 노용필, 앞의 책, p. 46.

‘歐羅巴國을 大西國 이라고 이름 하기도 한다. 利瑪竇라는 자가 있어서, 8년 동안이 나 바다에 떠서 8만리의 풍랑을 넘어, 돌월에 와서 십여 년이나 살았다. 그가 저술한 [천주실의] 2권이 있다. --또 그 풍습에는 우의를 소중히 여기며 사사로운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는 [重友論]을 지었다. 焦竑 (1540-1620)이 ³⁹⁾ 말하기를, “서역사람인 이군이 <벗은 제 2의 나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기이하다”고 하였다. 이 일은 [속이담]에 자세히 보인다.’ ⁴⁰⁾

6-3. 성호 이익(1682-1763)은 신후담과 안정복, 권철신 등, 후학을 양성하여 기호 남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마태오 리치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았고, 리치 신부를 일러 ‘참으로 성인이다’고 할 정도로, 천주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한편, 리치의 저술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글이 [교우론]이었다.

‘집에 1권의 외국서적 [교우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친구는 제 2의 나라. (교우론 1장).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다.(교우론 2장). 읽기를 모두 하니, 이는 뼈를 찌르는 이야기이다. --그 책에 또 말하기를, 孝子が 父의 交友를 잇는 것은 産業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교우론 4장)고 하였는데, 그 말은 진실하고 확실하니 가히 생각할만하다.’ ⁴¹⁾

6-4-1. [교우론]은 북학파의 홍대용(1731 - 1783),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의 마음을 열어, 조선 사회에 파격적인 벗 사귀음을 만들어 나갔다. 이들의 사귀음은 [교우론]에 있는 ‘벗은 제 2의 나’라는 기이한 말을 통해, 신분과 문화, 국경을 초월한 수평적 인간관을 낳고 있었다. 북학파는 耶穌教 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⁴²⁾

6-4-2. 담헌 홍대용을 취사하며 학문적으로 교류하던 초정 박제가(1750- 1805)는 담헌이 여행에서 귀국하자(1766년), 즉시 찾아가 홍대용을 만났다. ⁴³⁾ 박제가 역시 북경을 4차례나 다녀왔으며, ⁴⁴⁾ 정파가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덕조(벽)에 대한 추도시를 지어 남겼다. ⁴⁵⁾ 그가 이벽을 이토록 그리워하였던 것은 어려서부터 봉선사에서 함께 공부한 親友였기 때

39) FR N. 550.; d'Elia 논문, p. 513 참조.(方豪文錄 1948, p. 150).
 40)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벽위편, 이지봉의 유설.; 노용필, 앞의 책, p.19.
 41) 성호선생문집 상, 1974 경인문화사, p. 533 ; 순암집 제 6권, 권기명에 답하는 갑진년 편지에서도 칠국을 두고, ‘뼈를 찌르는 듯한 절실한 내용’이라 하고 있다.; 노용필, 앞의 책, 51.
 42)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2012 돌베개, p. 94.
 43) 박제가 연보, p. 557.; 선자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사회적인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사상을 전개하였고, 남인인 정약용과도 친교를 맺었다(정약용의 종두설 참조).
 44) 박제가는 1778년에 채제공의 종사관으로 1차 여행 중 북경성당을 방문하였고, 2차는 서호수의 종사관으로 1790년에, 곧 이어 3차는 1791년에, 유득공과 함께 4차 여행을 1801년에 하였으나, 귀국 후 9월에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다.(서학과의 관련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이었을 것이다. 46)

6-4-3. 홍대용의 부탁으로 박지원은 [회성원집 발문]을 썼는데, 이는 [교우론] 1장과 56장의 영락없는 판박이었다. “옛날에 봉우(朋友)를 말하는 사람들은 봉우를 ‘제 2 의 나’라 일컫기도 했고, ‘주선인(周旋人)’ 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 때문에 漢字를 만드는 자가 날개 우(羽) 자를 빌려 벗 봉(朋) 자를 만들었고, 손 수(手) 자와 또 우(又) 자를 합쳐서 벗 우(友) 자를 만들었으니(𨾏), 봉우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47)

6-4-4. 이같이 홍대용과 박지원이 [교우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삼강오륜에 나타난 수직적 봉건사회의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삼강오륜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봉건사회의 윤리관 속에서, 수평적 관계인 봉우는 오륜의 제일 마지막 항목이었고 부차적인 것이었었다. 그러나 박지원은 자신보다 4살 어린 이덕무와 벗으로 통했으며, 열두세 살 아래인 제자 박제가(1750-1805), 유득공 등과도 허물없이 지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은 모두 서자 출신이었다. 박제가는 이때의 허물없는 사귀를 기리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시와 편

45)이(덕조)벽에 대한 추도시에 대하여, 소순태 교수의 문답 1814번을 다음의 주소에서 참조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14.htm> ; 정민 외 옮김, 정유각집 상, 2010 돌베개, p. 519./ 앞으로 이 책을 ‘정유각집’으로 약칭.

박제가, [정유각집], 四悼詩, 李德操 藥 (위 소교수의 문답을 바탕으로 정리함)	
진(晉) 나라 사람들은 名理(淸譚家의 이론)를 숭상하여,	晉人尙名理, 진인상명리
청담은 그 세대(厥世)를 어지럽혔으나,	淸譚亂厥世 청담난걸세
德操(李藥)는 天地와 四方(육합)을 의논하였으니,	德操議六合, 덕조의육합
그대 어찌 實際의 떠남을 경험하였겠는가?	何嘗離實際 하상이실제
匹夫는 시대의 풍속에나 관계하고,	匹夫關時運 필부관시운
무너진 집이 (그들의) 經濟를 뜻하였었지!	破屋志經濟 파옥지경제
그대의 심장 가운데에는 커다란 선기옥형(혼천의)이 있어,	胸中大璣衡 흥중대기형
(그대에게) 四海는 홀로 닦아 도달할 수양(孤詣)이었더라.	四海一孤詣 사해일고예
각 사물은 그 본성을 알려주고,	物物喻性體 물물유성체
각 형상(形形)은 比例를 밝혀 주도다.	形形明比例 형형명비례
가장자리 멀리에 있는 거칠고 궁벽한 땅이 아직 열리지 않음을,	鴻荒諒未開 흥황양미개
(그대는) 세심하게 살펴, 名言이 서로 사귀어 두터워지게 하였도다.	名言孰相契 명언속상계
하늘 바람은 재주 있는 선비를(鸚鵡) 내어,	天風吹鸚鵡 천풍취앵무
그(새)들의 춤추며 나는(翻) 성공을 담아서(籠) 이루게 하도다.	鸞成出籠計 번성출농계
군색한 오두막집은 (그대의) 못다한 꿈(殘夢)을 분산시키고,	遽廬罷殘夢 거러파잔몽
靑山은 (그대의) 靈妙한 智慧를 장사지내는구나!	靑山葬靈慧 청산장영혜
봄가을 오고 가는 세월은 잠시도 쉬지 않으며,	春秋不暫停 춘추부잠정
각종 변화 속에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네.	萬化無非逝 만화무비서
긴 휘파람 소리(高聲囂歌)에 날아가는 기러기(그대)를 보내노니,	高嘯送飛鴻 고소송비홍
하늘도 땅(乾坤)과 함께(雙) 눈물을 삼키는구나(暗)!	乾坤暗雙涕 건곤암쌍제.

46) 정유각집 중, p. 388-歷季先寺余童子時讀書處也; 이벽전, -상천도를 작하여 봉점사 춘파대 사당 증.

47)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회성원집(繪聲園集)》발문.

지를 모아 [백담청연집]을 남겼다. 48) 양반 가문 출신의 홍대용과 박지원은 참된 [교우론]을 알았기에, 서러움을 받는 庶出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과 함께 제 2의 나로 친구처럼 지냈다. 그 때의 편지 및 시문을 간추려, 벗의 우의에 대해 야박한 자들에게 경계로 삼기 위해,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를 남기기도 했다. 49)

6-5. 그러므로 이들은 정파가 다른 남인파의 이벽과도 친구처럼 지냈기에, 이벽이 홍대용에게서 [천학초합]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cf. 이벽전), 이벽의 순교 후에는 박제가의 [사도시]가 작성될 수 있었다. 또한 이들과 교류하였던 이재 황윤석(1729-1791)은 무술년인 1778(정조2)년 11월 26일에, 이덕무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이덕무가 말하기를, “요사이 서울 안에 서학과 수리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자로 서명응과 그의 아들 서호수가 있는데, 또 이벽이 있으니, 바로 무인 이격의 동생입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며 사람됨이 고결한데, 지금 저등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정후조가 있으니, 바로 문관 정철조 50)의 동생입니다.” 고(1778) 하였습니다.’51)

또, ‘내가 나군(나동선, 敬汝 1743- 1777 진사)에게 묻기를, “지금 세상의 도성 사람들 중에 또한 총명하고 뛰어난 선비가 있는가?”라고 하니, 나군이 대답하기를, “이벽이란 자가 있는데, 월천군 이정암의 후손이고, 병사 이달의 아들(손자)이며, 이격의 형(동생)입니다. 어려운 글 열 줄을 한꺼번에 보면서 비호같이 읽어 내려가고, 동시에 눈 하나로는 위를 보고 다른 하나로는 아래를 볼 수 있고, 하나로는 왼쪽을 보고 다른 하나로는 오른쪽을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 한번 뛰어올라 공중에서 3회전할 수 있으며, 두 질을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평소 서양의 <천주실의>를 몹시 좋아하여, 한때 그 무리의 으뜸이 되었는데, 나이 30에 요절하였습니다. 근년에 임금이 서양의 학문에 대해 율. 역. 수. 종류 이외에 천주실의의 학문을 하는 자들로부터, 형조에서 그 책들을 거둬들여 불태우고 경향에 엄히 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군이 당시 세자익위사의 별전에 들자(동생인 이석과 혼동?) 52) 상소하여 천주의 설을 스스로 아뢰었습니다.”라고 하였다.’(1786년). 53) 또한, ‘북극고도가 한양은 37도 15분이고, 위원(위원이 지칭한 것은 북경?)은 40도 51분이다. 예전에 이벽에게 들었는데, 백두산은 42도 남짓으로, 봉조하 서명응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54)

48) 백담은 현재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지(圓覺寺址)의 석탑(白塔)을 가리킨다.
 49)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63권,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 정유각집, [관한 서상수에게 주다] 참조.
 50) 정철조는(1730-1781) 홍대용과 함께 김원행의 제자로서 석실서원에서 동문수학하였고, 이가환과는 서로 쌍 처남 매부간이며, 여주의 화가 이희영 순교자의 스승이다.
 51) 황윤석, 이재난고 27책 무술(1778) 11월 26일 입자. /= 서종태, 이벽의 서학탐구와 서울거처 및 천주교 수용시기, <이벽 새벽을 열다>, 2015.9.24 심포지엄에서 재인용.; 동생 정후조(해주 정씨 1738-1777생원)는 북학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이벽과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2) 일성록 1795, 6. 18 자궁에게 진찬하였다. /(혜경궁 회갑연)에, 내외빈상 숙설소(內外賓床熟設所)를 보정문(保定門) 북쪽 월랑(月廊)에 설치하였다. 당상은 판돈녕부사 서유린(徐有隣), 돈녕부 도정 윤행임(尹行恠)이, 장관(將官)은 전 승지 이진수(李晉秀), 별군직(別軍職) 이석(李皙).
 53) 황윤석, 이재난고 38책 병오(1786) 5월 5일 정미. /= 서종태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54) 성대중, 청성잡기 권5, 성언, ‘백두산의 위도’ /= 서종태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7. 답헌 홍대용과 이벽의 교우관계 55)

7-1. 답헌 **홍대용(1731 - 1783)**은 56) 현 남양주시의 미음나루 근처에 있는 석실서원에서 57) 미호선생(溟湖先生) 김원행(金元行,伯春)에게 사사(師事)하였다. 58) 석실서원의 위치는 이벽이 천진암과 두미에 머물 때 서울과 포천을 왕래하던 길목에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1770년대에 홍대용을 찾아 만나 볼 수 있었다고 여겨지며, 또한 책도 빌려서 필사하여 간직할 수 있었다고 본다. 홍대용은 애초 김원행이 중히 여기던 제자였고, 영조 말년 書筵에 서연 낙론을 대표하는 신진 학자로서 세손(정조) 교육(1774/5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59)

7-2. [이벽전]에서는, 이벽이 ‘홍(대용)군사로부터 [천학전함]을 전수하여’ 천학 天學공부에 몰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답헌 홍대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제까지의 연행일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홍대용의 부연사행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청 관계에 있어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홍대용의 연행일기에서 비롯되었다. 홍대용은 북경의 남당과 동당 성당을 찾아, 4차례에 걸쳐 그곳의 예수회 신부들을 만나 볼 수가 있었고, 이들의 과학과 종교에 대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에, 후에 고금도서집성 5,020권의 책을 정조 즉위 직후인 1777년에 은자 2,150냥을 주고 수입하여, 열람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60) 이 가운데 [천학초함]에 들어 있는 책을 이벽이 빌리거나 복사하여 공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후에 정약용도 이렇게 도입된 책들 가운데서, 정조가 내려주는 [기기도설]을 보고 응용하였다. 61) 이규경도 언급한 이 [기기도설]에는 기계의 조작과 설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造物主 천주가 조물주 天地를 만드신 후, 인류의 시조인 亞當(아담)과 厄禰(하 천지 아 당 맥 말)

55) 이경구, 답헌의 지식인교유와 지성사적 위치, [답헌 홍대용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참조. / 앞으로는 이 책을 ‘홍대용 연구’로 약칭한다.

56) 남양 홍씨. 자는 덕보, 호는 답헌, 천안 수신면 장산리 수촌에서 태어났고, 묘도 그곳에 있다.

57) 현재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치하며, 구산성지의 강 맞은편에 나룻터가 있던 곳으로, 서울에서 신부님들이 판공을 다닐 때, 양주 지역의 판공 이후, 미음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신부님의 미사 집을 받아서 구산으로 모셔왔다는, 부친(김완식)의 이야기를 필자는 들을 수 있었다.; 정약용의 시문집 3권(단오일배이형유천진암 직전의 시), 乘小艇泝流, 宿溟陰村.=그러므로 정약용은 1797년 5월 단오일에 천진암에 오기 직전에 미음에 머물렀다.; 1922. 8. 7일자 정규하 신부의 편지에서, 다니는 경로를 보면, 서울 -> 미음벌 -> 덕소 -> 마내(용문) -> 풍수원의 길을 가고 있다.

58) 홍대용, 답헌서 내집 3권, 서(書), 미호 선생 김원행에게 올리는 편지[上溟湖先生金元行書] 참조.

59) 홍대용, 답헌서 내집 2권, 계방일기(桂坊日記). ; 홍대용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p. 356.

60) 정조 1년(1777). 2. 24. 참조 - 정사 이은, 부사 서호수 등이 장계를 올려 그간의 상황을 알리다. 이후 동지 겸사은 정사 정준겸 등이 지난 해 봄에 완성된 <사고전서>를 (3만 6천권에 총목만 2백권) 구입하여 들여오고 있다.(1783. 3. 24.) 이어서 사은사 서장관 이정운은 (1785. 4. 19.) 이미 수입한 四庫全書 3만 6천권의 장서를 4부로 베껴서, 문원각, 문원각, 문진각, 문소각에 갈라서 보관한다.

61) 다산시문집 10권, 城說 - 글이 올려지자 임금의 비답이 용중(隆重)하셨는데 ‘용성(甕城)·포루(砲樓)·현안(懸眼)·누조(漏槽) 등의 제도와 기중(起重)의 모든 설(說)을 빨리 강구하라.’ 하고, 인하여 1권(卷)으로 집성(集成)된 내장도서(內藏圖書)를 내리시니, 이는 곧 《기기도설(奇器圖說)》이었습니다.

와)을 만드시어 地堂_{지당}에 두셨으나,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아 得罪_{득죄}함으로써, 남자는 耕田_{경전}하는 勞苦_{노고}를 해야 하고, 여자는 生育_{생육}과 艱辛_{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아담이 耕田_{경전}에 사용 하기 위해 器物_{기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62)

7-3. 홍대용은 서장관이 된 季父_{계부} 홍익을 따라서 자제군관 자격으로 1765년 11월 2 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12월 27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1766년 정월 초하루 조참례에 참여하여, 만주어로 행하는 의례 소리를 들으며 연행을 시작하였다. 63) 음악과 관련하여 담헌이 북경에서 목격한 경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월 9일에 남천주당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파이프오르간을 직접 연주까지 해보면서, 서양문물을 상세히 접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홍대용은 서양 과학을 새롭게 발견하고, 비로소 그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홍대용의 중국여행은 그의 사상 형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서 사귀 몇 명의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율(cf. 교우론) 나눔과 동시에 학문적인 교류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담헌은 정주학만이 아니라, 양명학, 西學_{서학}(천주교), 불교, 제자백가도, 모두 진리를 일정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상전개의 국면에서 尤교를 벗어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유교가 강조하는 차별과 차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등’을 사상적 지향점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64)

7-4. 홍대용 주위의 지식인들 가운데, 잘 알려진 그룹은 이른바 연암 박지원 일파이다. 연암 그룹은 담헌과 연암을 중심으로, 선배로는 김용겸, 원중거가 있었고, 후배로는 초정 박제가, 형암, 영재, 이서구 등이 있었다. 원중거가 1763/4년에 일본을 사행하고 기록한 [승사록] 과 [화국지]는 담헌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원중거는 일본 문화를 상세히 전하며, 그들의 시문용성, 서적유통 등을 높이 평가하여 ‘해중문명’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65) 홍대용이 원중거를 취사했던 것처럼, 연암 박지원과 초정 박제가(1750-1805)는 홍대용을 취사하였다. 특히 박제가는 급진적으로 문명의 위계를 세우고 중국의 선진성을 수용하고자 했고, 文物교류 지향을 서양으로까지 확대시켜, 서양 선교사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66) 초정은 다산 정약용과 절친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천주교 창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62) 耶穌會士 鄧玉函 口授, 景教後學 王徵 譯繪, 遠西奇器圖設錄卷第1, p. 13ab.;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소순태 교수가 찾아내어 필자에게 제공한 [기기도설]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6-1630_요한_테렌츠&왕징/1627_원서기기도설.htm](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76-1630_요한_테렌츠&왕징/1627_원서기기도설목회권제)

63) 홍대용, 담헌서 외집 8권, 연기, 경성기략 -북경 관(館)에 머물러 있는 62일 동안에, 돌아다니며 구경한 날이 33일이었다; 홍대용 연구, p. 292.

64) 홍대용 연구, p. 108

65) 홍대용 연구, p. 358; 원중거, 화국지, 2006 박재금 역 ; 원중거, 승사록, 2006 김정숙 역 참조.

66) 박제가, 정유각집 권 3, 병오정월22일; 박제가 년보, p. 563.

이벽을 경제의 선비이자 사물의 본성을 깨우친 이로 평가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를 써서 남겼다.

7-5. 김원행 문하에서 홍대용과 동문이었던 정철조(1730-1781)는 성호 이익의 조카이자 이가환의 부친인 이용휴의 사위였다(=정철조는 이가환과 쌍 매부처남). 이가환의 부친 이용휴의 집에는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기하원본]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이가환은 매부(동시에 처남) 정철조로부터 [수리정온]을 빌려보기도 하였고, 황윤석은 정철조로부터 [역상고성]을 빌려 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철조를 매개로 담헌 등 연암 일파와 성호학파의 학문적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생전의 홍대용은 성호사설을 소장하여 읽은 듯하다. 연암일파와 이가환 등과의 교류는 홍대용의 사후에(1783) 더욱 긴밀해졌다. 그중 초정 박제가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였다. 박제가는 자신과 절친했던 친구 60인을 기린 시(戲傲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에서, 정철조와 이용휴, 그리고 이가환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노래하였다. 67)

7-6.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는, 조선 후기 서양화법의 효시라고 하는 이희영(1756-1801) 68)의 犬圖가 소장되어 있다. 이희영의 견도는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서 장식용으로 가져온 서양화와 북학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희영의 스승인 정철조(1730-1781)는 1772년 이후로,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 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문학과 예술, 실용적인 학문 등을 연마했다. 그는 서양 과학 서적을 연구하여 천문관측이나 역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다. 또한 정밀한 그림에도 뛰어나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69)

8-1. 그러나 성호의 제자들 대에 이르러, 안순암(1712-1791)은 천학교에서, 衆緯(천중위) 문역법)와 句股(기하학)의 술법 이외에는, 무조건 모두 서양의 이론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기경(1756-1819)은, '저들은 父子, 君臣, 夫婦의 인륜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友誼를 존중하니, 이미 재물과 여자를 서로 유통하여 쓰는 기미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

67)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2월14일, 승문원 정자 이가환을 불러 질의하다.; 홍대용 연구, p. 362.; 심경호의 여유당전서, 시집 해제에서, 정약용은 해배 후, 권영좌 진사와 교류했다. /권영좌는 권진이 야가다 성녀의 부친으로서 대세를 받고 선종하면서, 부인 한영이 성녀와 딸 권진이 성녀에게 신앙을 권유하였는데, 그의 신앙은 정약용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68) 추안급국안 1801. 3. 17. 이희영 심문에서, 김건순의 양부가 저를 자식처럼 여겨 10년을 함께 살았고, 이희영을 화가 李秋燦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덕무라고 하였다.

69) 황사영 백서, 64행; 정조 5년 1781. 9. 4.; 일성록 1791. 9. 4;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p. 126.; 윤사연 집, 벽위신편 참조.

우론] 마저 왜곡시켜 비하하고 있다. 70) 또한 거상중의 이기경은 상소(cf. 김시준역 벽위편 150) 때문에 귀양을 가서 尋眞曲을 작성하였는데, 이벽의 천주공경가의 ‘어화세상 벗님네야 심진곡 이내말씀 들어보소’에 대비하여, ‘길-가는 아해들아 --이내말씀 듣고가소’로 대꾸하였다. 한편 신돈와(신후담)의 서학변에서는 갑진년에 71) 이미, [영언여작]과 [천주실의], [직방외기] 등의 내용을 장황하게 비판하면서도, [교우론]은 다루지 않았다.

8-2. 신해박해(1791) 중에 올린 이기경의 상소에, 이기경 본인과 채제공(1720-1799) 역시 [천주실의]를 읽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72) 초정 박제가는 1778년 1차 연행에서 채제공의 종사관으로 수행을 하였었다. 박제가 역시 이때를 전후하여 [천학초함] 전권을 읽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벽의 순교 후, <1786년 1월 22일 朝參시에 박제가가 품었던 생각> 속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신이 듣기에, 중국의 흠천감에서 역서를 만드는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기하학에 밝고 이용후생의 방법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관상감 한 부서를 운영하는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 머물게 하고, 나라의 인재들로 하여금 천문과 천체의 운행, 악기나 천문관측기구의 제도, 농잠, 의약, 기후의 이치 및 벽돌을 만들어 궁궐과 성곽과 다리를 짓는 방법, 구리나 옥을 채굴하고 유리를 구워내는 방법, 화포를 설치하는 법, 관개하는 법, 무거운 것을 멀리 옮기는 기술을 배우게 하십시오.(천학초함, 기편). -- 신의 생각에 그들 무리 수십 명을 한 곳에 거처하게 하면, 난을 일으키지 못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도 벼슬도 하지 않고 모든 욕망을 끊은 채, 먼 나라를 여행하며 포교하는 것만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천당과 지옥을 독실하게 믿어 불교와 차이가 없지만, 후생의 도구는 불교에는 없는 것입니다.(천학초함, 리편). 열 가지를 가져오고 그중의 하나를 금한다면, 옳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들에 대한 대우가 적절치 않아, 불려도 오지 않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73)

병오소회를 읽은 3일 후, 정조는 선대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갱장록] 수정작업에 참여할 명분으로, 박제가를 승진시키라는 어명을 내려, 박제가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74) 그로부터 10 여년이 지난 후, 정조는 박제가의 간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

70) 벽위편, 안순암의 천학문답.; 일성록 1795. 7. 24. 천주교인들은 ‘어버이를 버리고 벗을 중시.’
 71) 김시준역, 벽위편, 신돈와의 서학변 참조. -이승훈이 북경에 다녀온 해가 1784 갑진년이므로, 벌써 60년 전 갑진년에 이렇게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후자는 甲辰의 글자가 甲戌과 비슷하므로, 갑진년인 1724년이 아니라 1754년의 갑술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cf. 홍이섭, 실학의 理念的一貌, <인문과학>1집, 1957. 12.).
 72) 김시준역, 벽위편, p. 151, 153.
 73) 일성록, 1786. 1. 22.; 정조 10년 1786. 1. 22.; 정유각집 하, 2010 돌베개, p. 198 - 199; 당시에 이 단락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이본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도 있다고 한다.; 다산시문집 제10권, 설(說), 성설(城說); 起重圖說; 목민심서; 자찬 묘지명(自撰墓誌銘) 집중본(集中本); 성호전집 55권, 제발(題跋),(跋天問略); 박지원, 열하일기, 일신수필, 車制참조.
 74) 일성록, 정조 10년 1786. 4. 25.

는데, 왕이 북경에 있는 서양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럽과 교류하고 서양신부를 영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75) 그러나 정조가 48세 라는 젊은 나이로 갑자기 운명함으로써, 76) 박제가의 주장처럼, 서양신부를 초빙하여 개혁을 추구하려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제가는 이와 같이 서양 선교사들을 등용하여 그들의 과학과 기술을 배우자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까지 이렇게 건의하고 있으며 77), 정약용과 더불어 종두법을 함께 연구하는 등, 이들은 봉당을 초월하여 실용적인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교류로 미루어 보아, 이벽 역시 박제의 스승 격인 홍대용을 만나서 연행사실을 듣고 배웠으며, [천학초함]도 전수하여 보았다는 ‘이벽전’의 내용이 -(부연사 홍(대용)군사로써 천학전함을 증수하여 몰독주야하시더니)-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벽전]에서 이벽이 홍(대용)군사로부터 [천학전함]을 전수하여 천학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78)

8-3. 이이명(1658 - 1722)은 숙종 때 영의정까지 지내다가 숙종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고부사로 북경에 가면서 이기지(1690 - 1722)를 자제군관으로 대동하였던 노론의 거목이었다. 1795년에 노론이 耶穌교를 믿는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등 남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소를 올렸을 때, 정조는 ‘耶穌敎가 儒敎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이명의 편지를 인용하여 남인을 보호하였다. 79) 정조가 평택 안핵어사로 파견한 김희채(1744-1802)는 본관이 청풍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노론이었으나, 그는 이동욱의 從孀였고, 이승훈이 평택 현감으로 있으면서 3년 동안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지 않은 사실을 엄폐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報告 선상에 있던 승지도 이동욱의 從兄 이동현이었다. 80) 이밖에 소론에서도 정파를 초월하

75) 윤민구역주, 시복자료집 5, 2000 수원교구 시복시성 추진위원회, p. 120 - /' ma ben per capirle bisognerebbe aver letto cio, che sette o otto anni fa, fu mandato in Europa La lettera del Re di Corea conferma tutto cio che fu detto della fermezza dei nuovi Cristiani, del zelo e dei sorprendenti progressi della Religione.' (=번역: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7,8년 전에, 조선 왕의 편지가 유럽에 보내진 내용으로 보면, (조선의) 새 신자들이 굳건함과 열정으로 놀라운 발전(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6) 다산시문집 제17권 /고금도(古今島) 장씨(張氏) 딸에 대한 기사(紀事)에서, 정약용은 장씨의 입을 빌려, “시상(時相)이 역의(逆醫) 심인(沈鎭)을 천거하여, 그에게 독약을 올리게 하였다.”고 한다.

77) 박제가, 정유각문집 권3, 병오정월이십이일. / =東道西器論적인 생각이다.

78)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I, 천주교수원교구 시복시성위원회, 2011, p.157에서, 차기진은 ‘이벽이 홍대용에게서 한문 서학서들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대용은 노론 쪽 인물이고 이벽과 그의 집안은 남인에 속하기 때문이다.’하며, 남인인 이벽이 노론의 홍대용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한다.(cf. 윤민구, 한국천주교회사의 쟁점연구, 2014 국학자료원, p.374).

79)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연행록,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201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가운데, 이이명의 자제군관으로 1720년 고부사에 수행했던 이기지의 일암연기(1720. 7. 27 - 1721. 1. 7.)가 있다.(신익철, 일암연기 해제, <연행록선집보유> 상, 대동문화연구원 2008 참조). - 여러차례 선교사들을 만나, 수시로 서양화와 책들을 받았다.(p. 119).

80) 정조15년 11월11일; 정조16년 2월28일; 순조1년 12월24일; 정약용, 목민심서 해관 6조, 願留.; 충청감영계록 1845. 7. 20. 참조.

여 姜世晷의 아들 姜彝天이 천주교를 수용하였고, 81) 안동 김문의 봉사손이었던 노론의 金健淳과 그의 族兄 金伯淳이 천주교를 신봉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김건순은 제사문제로 권철신과 교유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까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2) 노론 명문 집안 출신인 김건순은 이미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리치 신부의 [기인십편]을 통해 일찍부터 천주교를 알고 있었다. 그는 양근(감호)으로 권철신을 찾아가 교리를 배웠고, 1797년에는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받고 서울로 찾아가 요사팻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김건순은 이후 친척과 친구들에게 신앙을 전파하여, 여주에서 이중배, 원경도, 이현, 이희영, 정치상, 김치석 등을 입교시켰다. 83) 여주에 살던 김건순은 애초 주문모 신부에게 복벌을 설득하고, 이용후생을 배우고자 접근하였었는데, 이는 담헌 홍대용 등과 큰 테두리를 공유하는 장면이다. 84)

9-1. 천주교 신앙을 반대하는 攻西派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천학초함]을 읽고

나서도 비판하였다면, 천진암강학에 모여서 공부하던 信西派의 (천진암)講學會者들은 더 적극적으로, [천학초함] 속에 들어 있는 여러 편의 글들을 읽었고, 특히 [교우론]도 읽고 실천에 옮겼을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정약전(1758-1816)은 서울의 젊은 士類들과 交遊하며 견문을 넓히고 뜻을 高尚히 가져 이윤하(李潤夏)·이승훈(李承薰)·김원성(金源星) 등과 군은 친분을 맺고 (定爲石交), - 학문을 講論하고 琢磨하여 서로 더불어 덕을 쌓고 學業을 닦았다. (當此時。李承薰亦淬礪自強). 일찍이 이벽(李檠)과 從遊하여 曆數의 설을 듣고는 幾何원본을 연구하고 심오한 이치를 분석하였다.(嘗從李檠游。聞曆數之學。究幾何原本)’. 85) 이런 내용은 [교우론]도 함께 읽고 실천하였음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9-2. [교우론]을 읽어 잘 알고 있으면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법과는 달리,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표현을 정약용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정약용은 사돈 형인 이벽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광경을 시로 옮기면서, 同友人李德操檠乘舟入京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고, 이벽의 장례에 임하여 友人李德祖輓詞를 짓고 있는데, 그는 유독 이벽만을 友人이라 칭하고 있다. 86) 이렇게 丁若鏞 요한 사도(若望) 承攄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장 흠모하며 따

81) 황사영 백서, 58-60행.; 姜彝天(1768생-1786진사)은 1797에 주문모와 접촉한 죄로 1801년에 효수됨.
 82)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상, 488- 495.
 83) 황사영, 백서, 54행; 사학징의, p. 119.
 84) 홍대용 연구, p. 363.; 김시준역, 벽위편, p. 273.
 85) 정약용, 선종씨(정약전) 묘지명.
 86) 정약용, 第一集詩文集第一卷, 詩, 同友人李德操檠乘舟入京 四月十五日과 友人李德祖輓詞.

르던 스승격의 曠菴 이벽이 非命으로 32세에 殉教하자, 당시의 狀況과 世風人心을 輓詞로 표현한 것은, 8살 위의 스승격인 이벽을 [교우론]에 나오는 진정한 友人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87)

9-3. 또한 정약용은 귀양지 강진의 다산 동암에서 1815년에 지은 [심경밀힘]에서, 다음과 같이 벗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樂記>, 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악기에, 군자 가로되, 禮(예의)와 樂(음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떼어놓는 것이 불가하니라. /이에 대하여, 伊川이 가로되, 학자는 경을 이야기하고 도를 논할(여기서 언지만) 필요도 없이, 行事에 임하여 직접 권하고 勸容 周旋(朋友) 88) 하는 가운데 禮를 얻는다.(= 伊川曰: “學者有所得, 不必在談經論道間。當於行事, 動容周旋中禮, 得之。”). / ○橫渠(북송 유학자) 가로되, 옛 사람은 친구와 금슬(악기)과, 간편(책)을 얻기를 바랐으니, 항상 심이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로, 사람이 비파와 책을 벗으로 삼으면서는 雅飭(언행이 예의와 제도에 합치)을 維持하기가 쉽지만, 소경과 귀머거리, 병어리와 앓은뱅이, 걸인과 비천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무리를 (벗으로) 만나면서도, 엄숙하고 공경하는 기색을 잃지 않고, 예의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橫渠曰: “古人欲得朋友與琴瑟、簡編, 常使心在於此。” ○案 人在朋友、琴、書之間, 能雅飭自持, 易, 遇瞽者、聾者、啞者、跛者、丐者、鄙淺者、愚癡者, 89) 不失莊敬之色, 待之以禮, 難。).

87) 정약용, 자찬묘지명/從李槩遊 聞西教見西書./이벽 순교시기(1785)에 정약용은 천주교에 흠뻑 빠져.
88)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회성원집(繪聲園集)》발문./= 주선인(周旋人)은 보통 시중드는 사람이나 문객(門客)을 뜻하는데, 당(唐) 나라 이전에는 한때 봉우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각주 2.
89) 천주실의 하권 8편 /其巡遊昭諭於民, 瞽者命聽即聽, 瞽者命視即視, 啞者命言即言, 關跛者命行即行, 死者命生即生./ 여기서 귀머거리, 장님, 병어리, 앓은뱅이(跛)의 용어를 보면, 정약용이 심경밀힘에서 사용한 용어와 비교하여 볼 때, 천주실의와 성경광익, 그리고 성세추요 등을 읽은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에 대하여, 소순태 교수는 훈고(訓詁)에 밝은 정약용이 멸문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태오 리치가 천주실의에서 인용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心經(宋 眞德秀 撰)의 樂記의 한 구절의 주해에서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을 ‘예기정의’와 ‘태평어람’에서 가져다 쓴 것이라고 한다. 천주실의와 성경광익, 그리고 성세추요뿐만이 아니라, 천주강생언행기략 3권 4 若翰遣使詢主, 4권 5 加理勒亞聖蹟과, 천주강생성경지해 7권6a 성신강림후제2주일, -遇貧弱瞽癩(수족병)悉播引入 등이 또한 심경밀힘의 출처들로서 제시되고 있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소순태의 문답 글을 참조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73.htm> ; 다산 시문집 18권, 학유에게 준 가계에, ‘옛날의 선왕(先王) 들은 사람을 임용하는 데 지혜가 있었다. 소경에게는 음악을 살피게 하고 절름발이에게는 대궐문을 지키게 하며, 환관(宦官)들로 궁중을 출입케 하였으며 등급은 늙은이(癯)·불구자·허약자 등의 쓸모없는 무리들까지도 적당한 임무를 맡겼으니,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昔先王用物有智. 瞽者使審樂. 跛者使守闈. 瘡者使出入宮闈. 罷癯殘疾疴兀之屬. 用各得宜. 此事最宜商究也.

9-4. 朋黨의 벽을 넘어서며, 진리를 찾고 기뻐하는 士類들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한편, 신앙 안에서 모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班常의 사회적 단절을 사랑으로 극복하여 가는 천주교 공동체인 敎友村도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한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면서 하인과 백정까지 정중하게 대우하였던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순교자의 경우를 보면, 그의 교우론 실천에 감격한 황일광 알렉시오는 “신분으로 보아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정중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나에게서 천당이 두 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90) 이렇게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정신은 곧 [교우론]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였다.

10. [교우론]이 우리나라 작품에 반영된 흔적들

10-1. 천주공경가

“어화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로 시작하는 이벽의 천주공경가는, ‘수시 이성호 종학도와 賢友賢士 이씨 정씨네와 면학하시더라.’ 91) 했던 (천진암강학) 중에 노래로 지어 부른 團體歌였다. 삼강오륜에서 우선시 하는 수직관계의 君臣, 父子, 夫婦의 관계에 앞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관계인 벗의 관계로 (朋友) 보며 중요시하였기에, 노랫말의 제일 앞에 배치하여 놓았다. 이에 반하여 이기경은 귀양 중에 작성한 尋眞曲에서, 이벽의 천주공경가의 ‘어화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에 대꾸하며, ‘길-가는 **아해들아** --이내말씀 **듣고가소**’로 下待하는 표현을 하였다. 벽위편에서도, ‘저들은 父子, 君臣, 夫婦의 인륜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友誼를 존송하니’ 하며, 순암 안정복이 그토록 타일러 고치려 하던 천진암강학 관련자들이 벗을 첫 자리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92)

90) 달래 상, p. 474; 사학정의, p. 146.; cf. 요한복음 15, 12-17.

91) 이벽전, 9b.

92) [만천유교]에 들어있는 천주공경가는 최필선과 강영애의 글에 3명(백제순, 석우동, 조창환)의 가창자들이 있고, 백제순의 경우 1850년경부터 구전되어 오는 천주가사라고 한다.; 김시준역, 벽위편, 안순암의 천학문답, p. 34.; cf. 이대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연구, 2014 대전 가톨릭대, p. 247 각주 71./‘어와 벗님네야 집구경 가자셔라’(李滉, 道德歌)는 [교우론]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것이나, 천주공경가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양업 신부, 천당 산양가(사향가), 오춘백씨(오배드루) 소장본에서, ‘어화세상 벗님네야 우리낙토 초즈가자, 지당을 가즈흐이 아담원조 너 | 처닛고, 복지로 가즈흐이 믹스(모세)선인 못드렸고(1)’ 하며, ‘오주예슈 강스 | 흠이 괴모흠이(기묘함) 세히로다.(5). 이외에도 ‘어화 벗님네야 우리고국(고향) 차자가세’는 27, 28, 29, 30, 40. 에서도 나오고 있다.

10-2. 성교요지

[성교요지]가 [교우론]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 5 장 예수님의 가족

東界友師	동계우사	동방의 師友들이 <small>사우</small>
軍光詳視	군광상시	별빛으로 길을 상세히 살펴
造室辱臨	조실욕림	산실로 찾아와
伏拜依次	복배의차	(예수님께) 차례로 엎드려 절하였네.

5장에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東界友師로 표현하면서, 논어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를 은연중에 암시하였다고 본다.

제 13 장 최후의 만찬

工役貧富	공역빈부	일꾼 관리 빈자 부자
左右近交	좌우근교	좌우로 가깝게 사귀시며
餘論尤服	여론우복	여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班旅盡招	반여진초	흩어진 무리 초대하셨네.

13장 최후의 만찬 부분은,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 15, 15)는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 일꾼과 관리, 빈자와 부자들이 서로 친하게 사귀고, 양반과 상인들이 모두 다 평등하게 살면, 하느님의 초대를 받는다는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10-3. 이벽전

‘시세 무술년 이십오세라. 수시 이성호 종학도와 賢友賢士 이(승훈)씨 정(약용)씨네와 면학하시드라. --광주 원양산사(천진암)에 은거하시매, 道友가 중도하니 [聖教要旨]를 하필 하시더라. -- 기해(1779) 시세 이십육세시 賢友 면학 위상(爲上)하야 중집산사하니 공이 기학 다박하여’ 93)

이벽을 스승으로 모시고(爲上) 함께 공부하는 나이 어린 사람들도 모두 서로 賢友와 道友로 칭하며, 친구처럼 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끝.

93) 이벽전, 9b.